

강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촛불 이어하기!
강정에서 6월 28일 출발한 촛불은 한 달동안 23개 도시를 돌아 다시 강정 주민들의 손에 전해졌다.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세 상임대표는 촛불이 열리는 매 지역을 찾아가 격려하였다. 각 지역에서 진행된 촛불행사의 경과와 문규현 상임대표의 발언들을 모아 신는다. - 편집자 주

#1. 강정

용역이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촛불문화제 무대를 포위했다. 그리하여 경찰들로 꾸민 가장 특색있는 무대가 완성되었다. 지킴이 독립군이 신성한 뱃부리 제단에서 태양열로 피운 불을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가 어둠을 뚫고 청사초롱에 담아왔다. 촛불이 드디어 밝혀졌다!



#2. 제주

“우리는 지금 손에, 손에 촛불을 듭니다. 평화의 촛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엔 타오르는 건 햇불입니다. 평화의 햇불입니다. 촛불이든 햇불이든, 이것은 봉화입니다. 선조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함을 알리기 위해 곳곳의 산봉우리에서 피어 올리던 구국의 봉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강정 해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전쟁기지요, 미군기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는 갈등이 격화되고 전쟁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제주가 또 다시 야만의 섬, 비극의 섬이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가결시킨 한일 군사협정은 우리의 우려가 사실이고, 진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년을 하루도, 한 시도 쉬지 않고 평화를 외쳐왔으나, 이제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더욱 정당해졌습니다. 방방곡곡에 평화의 촛불, 평화의 햇불이 타오르고, 평화의 봉화가 높이 올라야 합니다.”

강정촛불이 바다를 건너 땅 끝
해남에 도착했다.

#3. 해남



#4. 순천

“어제 강정마을에서는 미국 군사기지전문가 백구한 선생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백구한 씨는 “강정을 하와이처럼 만들자는 박근혜는 바보이거나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금 하와이는 “개발주의와 해군기지로 의해 물과 땅이 심하게 오염되어, 식량 생산이 아예 불가능한 불모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 들통 난 한일군사협정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대 중국 군사전략 재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바로 그 모든 음모와 계략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국은 분명히 공군기지도 쓰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한국의 보물, 세계의 보물 제주가, 동북아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전체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 순천은 역사의 고장입니다. 65년 전, 제주에서 4. 3 비극이 진행될 때, 여수 순천 군인들은 제주 진압 동원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동족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순천시민 여러분께, 다시금 청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향한 쉽 없는 전진, 눈물과 희망을 함께 나누었던 고귀한 역사를 새로이 살아주십시오. ‘당신들을 죽일 수 없다, 당신들에게 공감 한다, 당신들과 함께 한다, 당신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과 손길을 다시 내어주십시오.”

#5. 광주

“오늘 우리는 빛의 중심이요 의미의 중심인 오월 광주에서 촛불을 듭니다. 구구하게 말하지 않아도,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광주시민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4.3 비극의 섬 제주가 오월광주에 전율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강정의 슬픔, 강정의 고통에 오월광주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무고한 주민들 삶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앞세워 전쟁 벌이듯, 자국민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오월 광주는 외로웠지만 그 오월 광주가 있었기에, 지금 강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월 광주는 반드시 해군기지를 막아내고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는 제주 평화의 섬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6. 무안



무안에서 강정마을로 시집 간, 강정마을회 정영희 여성위원장은 친정인 무안 주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하였다. “구럼비 바위는 외롭고 힘들때 친정엄마처럼 보듬어 주었었다. 구럼비 바위를 지켜달라”

#7. 창원

강정+쌍차+용산 공동행동 SKY ACT 가 함께 한 날. 국민이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8. 김제

한명 한명 찾아가 촛불집회로 초청한 실무자의 정성이 돋보였던 김제. 그래서일까? 폭우속에서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9. 군산

“오늘 촛불은 특히 의미 있습니다. 군산은 오랫동안 이곳 미군기지 황포에 저항해 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 강정마을이 군산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대추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택에서 미군헌병 7명이 민간인인 한국 시민들을 수갑 채워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주차문제로 벌어진 시비였습니다. 미군의 오만방자함과 점령군적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로 다른 지역 소식 들을 것 없이, 우리 군산이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논과 밭이, 바다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 ‘오키나와가 또 다시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정부와 미국이 오키나와 기노완 시 한가운데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현외로 옮긴다는 약속을 깨고, 게다가 ‘과부 제조기’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수송기 오스프리까지 배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산케이신문> 보도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7월 1일 1면 머리기사에서 “미 해병대가 오스프리를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보다,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인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도 유사시 한반도 개입하겠다고 대놓고 간보는 중입니다. 이 수상하고 긴박한 동북아시아 군사기지 재편전략의 핵심에 바로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뜨겁게 연대해주십시오.”

#10. 대전

촛불을 담은 컵마다 ‘강정평화’가 쓰여 있다. 대전 종교인들이 ‘강정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세계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노래 합창을 했다.



#11. 부산

“한 이십여 년 간 경상도 지역을 방문할 일이 없었던 제가, 지난 1년간 고리원전, 밀양, 대구, 영덕 등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나이를 잊게 만든 것, 지역과 경계를 초월하여 돌아다니게 만든 것, 다 MB 가가 덕분입니다. 하수상한 시절 덕분입니다. 부산에는 이미 미국 핵 항모가 드나듭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 제주, 부산은 화약고의 한복판이 됩니다.

지난번에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다 끝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걱정스러워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상,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부당하게 자국민을 삶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자위권 행사이고 정당방위입니다. 부산은 이 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이제 부산을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도 반드시 실현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막아주십시오. 부산과 제주가 동북아 평화벨트, 평화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평화의 여정에 동반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부산 갈매기는 오직 평화로 난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강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12. 논산



아이들과 함께한 소박한 촛불

청주지역 청년들의 창의적 소품이 빛난 청주

#13. 청주



#14. 보령

“해군기지 건설반대와 강정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이 전국을 반 바퀴 돌았습니다. 재밌는 건, 촛불 길 따라 장마 구름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매번 아슬아슬합니다. 하여간, 어느 한 곳도 내리는 장마 비 때문에 촛불이 꺼진 적은 없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 상황이 어렵든 말든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 우리의 실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제주해군기지 건설해서 하와이처럼 명소로 만들자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해군기지랍니다. 미쳤습니다. 욕 나옵니다. 자기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를 전쟁기지로 내주고, 자국 국민더러 전쟁기지로 먹고살랍니다. 멸절한 농촌마을을 파괴하여 군부대 떡고물로 먹고살랍니다. 기지촌, 창녀촌 만들고 자국 청년들을 고작 전쟁 총알받이로 내모는 게, 이 나라 유력대선주자의 21세기 집권 청사진입니다. 슬픔입니다. 나라의 비극입니다. 박근혜 제안은 50년대 60년대 식 사고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과거에 고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빠꾸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한국전쟁 60년이 되도록 정전협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양민대학살을 겪은 제주4.3 비극의 후유증은, 아직도 깊고 깊습니다. 그런데, 분단과 전쟁, 학살과 분열, 공포스런 역사를 반복하게 생겼습니다. 다시금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져 죽게 생겼습니다.

보령은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중심 봉화대입니다. 이곳이 살아있어야 남으로 북으로, 동과 서로 촛불이 흐르고, 평화가 파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령이 계속 중심이 되어 평화의 촛불을, 민심의 횃불을 짊어주세요.”

#15. 평택

“지난 주말 밀양에 갔습니다. 거기 ‘76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7년째 막고 있는 촌로들이 있습니다. 이 송전탑은 세계 최고 전압에, 120미터 최고 높이로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도시로 내보내려는 것입니다.

70, 80세 된 할매 할배들이 산에 움막을 지어놓고 교대로 잡니다. 굶은 허리에 절룩거리면서, 지팡이로 1시간 반씩 걸려 매일 산에 올라 막강한 권력의 한진 용역들, 포크레인과 맞서왔습니다. 노인네들이 다시 완강하게 막아서니까, 한진은 주민들에게 10억의 손해배상과 공사 방해 시 하루 10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걱정했는데, 가서 보니 안 졸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해볼겁니다.” 하며 웃습니다.

오래 전, 여기 평택 대추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간 고생고생 해서 박토를 옥토로 일궈냈더니, 미군기지 짓는다고 쫓겨났습니다. 여기 평택 쌍차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추방되고 지워진 사람들입니다.

두물머리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용산에서, 쌍차에서 전쟁이, 군대가, 권력이, 정치가, 자본이 사람을 쫓아내고, 자연을 짓밟고 죽이고 있습니다. 강정이 대추리고 두물머리입니다. 밀양이 강정이고 용산이고 쌍차입니다. 쌍차가 나 자신이고 우리입니다. 젊은 노동자나 늙은 농부나, 시골촌부나 도시서민

이나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강정과 밀양 농민들이 호소합니다. “같이 살자.” 쌍차 노동자들이, 용산참사 고인들이 목 놓아 외칩니다. “같이 살자.” 구럼비가, 두물머리가 소리칩니다. “같이 살자.””

#16. 익산

익산 시민들 중에서도 올레길을 걷다 강정에 간 시민들이 있었다. 강정은 그렇게 많이들 기억되고 있다.



#17. 인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후손들 미래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할지, 아니면 100년 대계, 앞으로 전진 할 것인지,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은 제가 살아갈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그런데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며 남북분단을 당연하다 말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다시 집권을 허용합니까. 해군기지 만들어 전쟁으로 먹고 살자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집고 다니는 것을, 어찌 맨 정신으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박근혜는 ‘빠꾸해, 빠꾸해’ 하지만, 우리는 ‘웃기네, 웃기네’ 하면 됩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향하고, 미래를 선택합니다. 우리도 최선의 선택으로 박근혜와 수구세력의 갈잡은 꿈을, 멀리 날려버릴 것입니다.

어제 평택 촛불 대회에서, 쌍차 해고노동자 자녀들이 신나는 난타공연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애기들이 요새 제일 잘 나갑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고맙던지, 어른들은 눈물이 다 나고, 좋아 죽다,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합시다.

치유와 연대, 생명과 평화, 미래와 희망을 일구는 위대한 여정에 인천시민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인천시민들이 강정과 쌍차의 벗이요, 온 국민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지난 2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촛불 미사에서 저는 일제 하 대표적 민족저항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이 대구 출신입니다. 알고 계셨죠? 얼마나 자부심 넘치는 일입니까. 사실 대구시민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용기 있고 강력하게, 헛

#18. 대구

불을 들었고 봉화를 높이 올렸습니다. 일제 때인 1907년에 벌어진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도 바로 여기,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대구 지식인들이 많이 저항했고, 희생됐습니다.

76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막아온, 밀양 할매 할배들은 젊은 사람이 칠십, 대부분이 팔 십 전후입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북이보다 느린 걸음으로 지팡이 짚고산비탈길을 1시간 반씩 걸어올라야 송전탑 부지에 오릅니다. 거기 산 위에 움막을 짓고, 몇 년 동안 맨 몸으로 한전 사람들을 막아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재밌는 얘길 들었습니다. 산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한전하고 맞붙어 용감하게 싸우더니 평지도 제대로 걷기 힘들어하던 할매들이, 도리어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젠 “어무이, 반대운동 하러 나가이소” 하고 응원까지 합니다.

영원한 식민지는 없습니다. 영원한 독재도 없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빼앗긴 숲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빼앗긴 마음들, 미약한 영혼들에게도 자존과 자부심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전쟁의 노예, 무력의 노예, 과거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들을 빼앗기고, 봄조차 빼앗기는 일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9. 원주

“이곳 원주는 정의구현 운동과 생명운동이 태동하고 자란 성지이며, 정신적 고향입니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유신독재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님께서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천주교 주교가 구속되는 일은 전 세계 어딜 봐도 드문 사건인데, 그런 일이 박정희 때 일어났습니다. 지학순 주교님 구속을 계기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원주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운동의 발상지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이곳 원주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나락 한 알에 우주가 들어있다’며 생명운동을 주창하시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고, 한살림이 생겼습니다.

원주시민들께서 ‘힘내라 강정’을 외치며 격려하는 이 시간은 바로, 원주가 그와 같은 생명운동과 정의구현운동의 정신적 뿌리요, 구심점이라는 자기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굳건히 세워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을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는 농민들, 숲과 농토가 몇몇이 차지하여 놀이하는 골프장보다 소중합니다. 온 생명의 근원이고 생태계의 보고인 바다와 구럼비가 생명을 죽이는 군사기지보다 존엄하고 중요합니다.”

강정에 미안했던,
강정을 사랑한 강정앓이는 모두 모여라!

#20. 부천



#22. 전주

“소위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인기투표의 계절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망과 나라의 미래가, 집중 조명되는 시기여야 합니다. 이제 국가와 공권력이, 정치가, 제멋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무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철학과 통치방식으로 저들은 완강하게 버티지만,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부당함과 불의에 저항하며 참된 국민 중심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에는 평화가, 해고노동자는 일터로 갈 것입니다.

친일과 독재정권의 유산은 청산하고, 전쟁예산은 복지에 쓰게 될 것입니다. 소수를 위한 탐욕과 성장 중독, 개발독재는 물러가고 공존과 공생의 물결이 밀려들 것입니다. 12월에 평화 대통령 잘 뽑아서, 평화 순례, 평화 민란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21. 안동



문규현 신부 초청강연회에는 안동지역 수많은 이들이 참가.

#23. 서울



“강정 촛불 이어 켜기, 한 달 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촛불을 밝힌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쌍차, 용산, 밀양이 강정 촛불과 함께 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골프장에게 산 못 내준다며 결사적으로 막고 계시는 할매 할배들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또 다른 밀양이였습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 하는 주민들도 왔습니다. 고향을 지키려는 사람

들, 숲과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 일터와 생존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토록 서럽고 억울하고 힘든 분들이 촛불을 들고 “강정 우짜노.” 합니다. 강정 살리기는 이제, 생명평화의 시대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이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들이기 위해 행하는 퇴마의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냘픈 촛불이 최강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들었던 작은 촛불들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번져가는 거센 들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피어올린 촛불들은 이제, 전국을 밝히고 높이 떠오르는 봉화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강정더러 ‘죽어라, 죽어라, 더 죽어라’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정 평화, 시즌 2입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에 한 젊은이가 올린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군이 가지지 못한 무기: 시와 노래, 춤, 웃음, 상상력, 기도와 명상, 예배와 미사, 자발적 연대와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치는 평화에 대한 간절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7월 27일은,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일입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독재와 반민주 세력이, 탐욕스런 자본가들이 특하면 들고 나오는 무소불위 빨갱이 타령이 21세기 지금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남북이 분단 상태이고, 전쟁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토록 무자비하고 야만스럽게 강정 마을을 짓밟을 수 있는 명분도 이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개발독재와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인물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게 하고, 노동자들 서민들 가슴에 피멍들지 않게 하고, 농민은 농사짓고, 어부는 고기 잡으며, 웃게 할 수 있는, 마을 숲에서, 구럼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꼭 잘 뽑읍시다.

무력과 전쟁으로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 제주 해군기지 중단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영구히 만들어갈 그런 지도자, 한 마디로 평화 대통령입니다. 꼭 잘 뽑읍시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생명과 평화의 시대, 그걸 만들고 이끌어낼 힘은,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만큼만, 우리 쪽으로 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평화 민란, 평화 순례는 계속 됩니다. 강정에, 이 나라에, 온 세상에 평화가 올 때까지 계속 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또 다시 강정 평화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기쁘게, 신나게 다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촛불을 들고 달리는 이유

나비 강정지킴이

사람들은 나보고 욕심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보고 예민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보고 미련하다고 한다. 나는 욕심이 적다. 나는 섬세하다. 나는 그래.. 미련하다.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많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은 많지 않다. 어떤 것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단지 감수성이 예민할 뿐이다. 그리고, 미련한 건 사실이다.

가져보았지만 허무했다. 가져보았지만 쉽게 잃어도 보았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꼬옥 쥐어보아도 허무하게 빠져나가 결국엔 희미해져 버리는 소중한 것들. 그보다 안타까운 것이 있으랴. 어떤 것을 가지기 보다는 어떤 것을 해냄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내지 못함은 중요치 않았다.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해내지 못함은 저절로 극복이 된다. 우리에게겐 경험이라는 소중한 교훈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유난히 통증에 민감한 신경을 가진 것은.. 의사들이 알려준 것이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유난히 멍이 잘 들고, 유난히 살이 연하고, 유난히 피부가 민감하다. 유난히 기관지가 약하고, 유난히 발이 통증을 잘 느낀다. 이런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유난히 말이 가진 색감에 민감하고, 유난히 다른 이의 말에 반응하며, 유난히 공감이 빠르다. 유난히 말장난을 좋아하고, 유난히 기억력이 좋으며, 유난히 눈물이 많다. 이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련하다.

십년이 지나도, 이십년이 지나도.. 그 미련으로 한 사람만 붙들고 있다. 세상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놓아버리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미련함은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미련함 때문이다. 지금 내가 욕심껏 온갖 짓을 다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미련함 때문이다. 지금 내가 날마다 밤마다 가슴쥐어 뜯으며 눈물흘리는 이유가.

이 미련함 때문에..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갖을 수 있을지도 모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내가 남은 평생을 눈물과 후회로.. 이 십년 삼십년이 지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게 내가 촛불을 들고 달리는 이유.. 

*** 강정 지킴이 나비 : 강정에서 출발한 달려라 풋볼 전 일정에 양윤모 선생과 같이 풋볼과 다짐سن 현수막을 다음 지역으로 소중히 이어나르는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7월 27일 한겨레 전면광고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번도 평화협정 원년으로!

12월 대선에서 ‘평화 대통령’ 뽑아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정전협정 59주년,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 한반도 평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 5·24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작위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군사적 충돌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중국 포위를 노리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군사훈련의 강행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를 고착시켜 동북아에 산발전을 초래할 것입니다.
 -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대통령’을 뽑읍시다.
 - ‘평화대통령’ 임기 첫 해이자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을 평화협정 실현 원년으로 만듭시다.
 - 차기 정부 임기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정전협정에 명시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도 함께 실현합시다.

[illegible]

210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헤아릴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체결로 정지된 지 59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으며 물질적 정신적 손실 또한 막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정전협정 이래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군사주의와 냉전적 편가르기의 대리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초 한반도가 꾸었던 화해와 협력의 꿈은 정전 이래 가장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 대신 새로운 군비경쟁과 갈등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전 59년, 분단된 우리사회의 실정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의 삶이 총체적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생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국가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만합니다.

이제 정치군사적인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을 평화적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합니다. 군비를 줄여서 복지에 써야 합니다. 국가가 외부 위협을 핑계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소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협력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평화와 협력은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제회생의 돌파구며 생존전략입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소용없다거나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더러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진 북한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선하고 고쳐야 할 냉전 분단의 잔재들도 산적합니다. 그러나 대결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평통사는 지난 7월 26일 정전협정 59주년을 맞아 시민사회와 정계 등의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평화선언에는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시민, 민중, 종교, 정치권 등에서 500여명이 참여하였고, 정동영,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손학규, 김두관, 김정길 등 야권 대선 후보들도 참여하였다. - 편집자 주

지난 5년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적대감과 군사적 갈등은 커지고 협력의 기회만 사라졌습니다.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고, 도리어 봉쇄된 북한의 주민들과 더불어 봉쇄의 주체인 우리 자신까지, 양측이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갈등과 대결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한반도 평화협력 작업에 진지하게 제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통해, 그리고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낡은 냉전의 시대, 무한갈등과 군사대결의 시대로 뒷걸음치는 상황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됩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늦어도 2013년 7월 27일까지 60년 정전상황을 종식시킬 항구적 평화방안 마련을 위한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들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6.15선언, 10.4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촉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6자회담 합의대로 핵문제 해법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결은 대결을 부릅니다.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한일군사협력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같은, 냉전시대에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역내 편가르기를 국민 합의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평화와 협력은 대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동북아시아 시대의 여명을 열어갈 수단입니다. 이제 안으로는 민주화된 복지국가, 밖으로는 평화협력의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가 아니라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모든 나라가 공존하고 상생할 비전을 주도하는 평화협력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정파를 초월해 이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합시다. 민주주의, 복지와 더불어 평화의 길을 선택합시다. (2012. 7. 26) 



해군기지 반대하며 5년동안 매일매일을 전쟁치르듯 싸워 온 제주도 강정마을. 마을의 민속보존회 이영자 회장님과 마을 주민분들이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인증사진을 보내왔다. 처음에는 구럼비와 할망물, 마을을 지키는 것만 알았는데, 계속 투쟁을 하다보니, 강정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 세계평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마을 주민들..

정전협정 59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727 평화행동

1953년 7월 27일. 총성이 멎은 후 60년이 다 되도록 전쟁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60년이 되는 내년 2013년에는 반드시 평화협정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하며 올 대선에서 ‘평화협정 실현에 앞장서는’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취지로 727명이 26일~27일 평화행동에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750여명이 넘게 참여 하였지만, 인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 분을 중심으로 트위터 @spark946 (클릭)에 약 600여장의 사진을 올려줍니다. 숫자를 세어 보니 사진 속 인물은 735명 이더군요.

주요장소에서 1시간씩 땀별에 1인시위를 하신 분들도 있고, 가 법계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주시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편집자 주



인천에 강의왔다가 인증 사진 찍은 박노자 교수. '27일 당일은 외국에 있어 인증사진을 못 찍으니 미리 찍은 사진을 써 달라'고 한..



미군폭격장으로 50년간 고통받은 매항리. 2005년 매항리 사격장은 폐쇄되었지만 미군들은 포탄 하나 치우지 않고 내뱉다. 주민들이 4년동안 수거한 포탄만 3만여개. 대책위 사무실 앞 마당은 포탄으로 가득차지만 아직도 동섬 주변 해안에는 포탄들이 처박혀 있다. 추영배 매항리대책위 고문님이 무더위를 뚫고 수십여분을 걸어 가 그 앞에서 “2013년 정전 60주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피켓 들고 찰라!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1인시위하는 경기남부평통사 이종필 대표. 군산 공군기지 앞에서 1인시위하는 군산평통사 김연태 대표와 회원들, 대구 미군기지 앞에서도, 부평 미군기지 앞에서도 1인시위가 이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미 대사관 있는 광화문 일대에서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1인시위를 하였다. 광화문역 모든 출구에서, 이순신 동상 앞과 미대사관 앞 등, 사진은 미대사관 앞 변연식 공동대표.



뉴욕 재미청년단체 ‘노드돌’에서도 이번 평화행동에 참여했고, 뉴욕 시내 곳곳에서 1인시위를 하고 인증사진을 보내왔다. 뉴욕 번화가에서 한 1인시위는 많은 관광객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고. 일본평화운동단체 ‘AWC’에서도 이번 평화행동에 참여했고, 오사카 시내에서 1인시위를 하고는 인증사진을 보냈었다. 한편, 해외여행중에 이탈리아 기차역에서 유럽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진을 찍어 보내온 이도 있었고, 국제회의에 참가 차 홍콩에 갔던 이가 인증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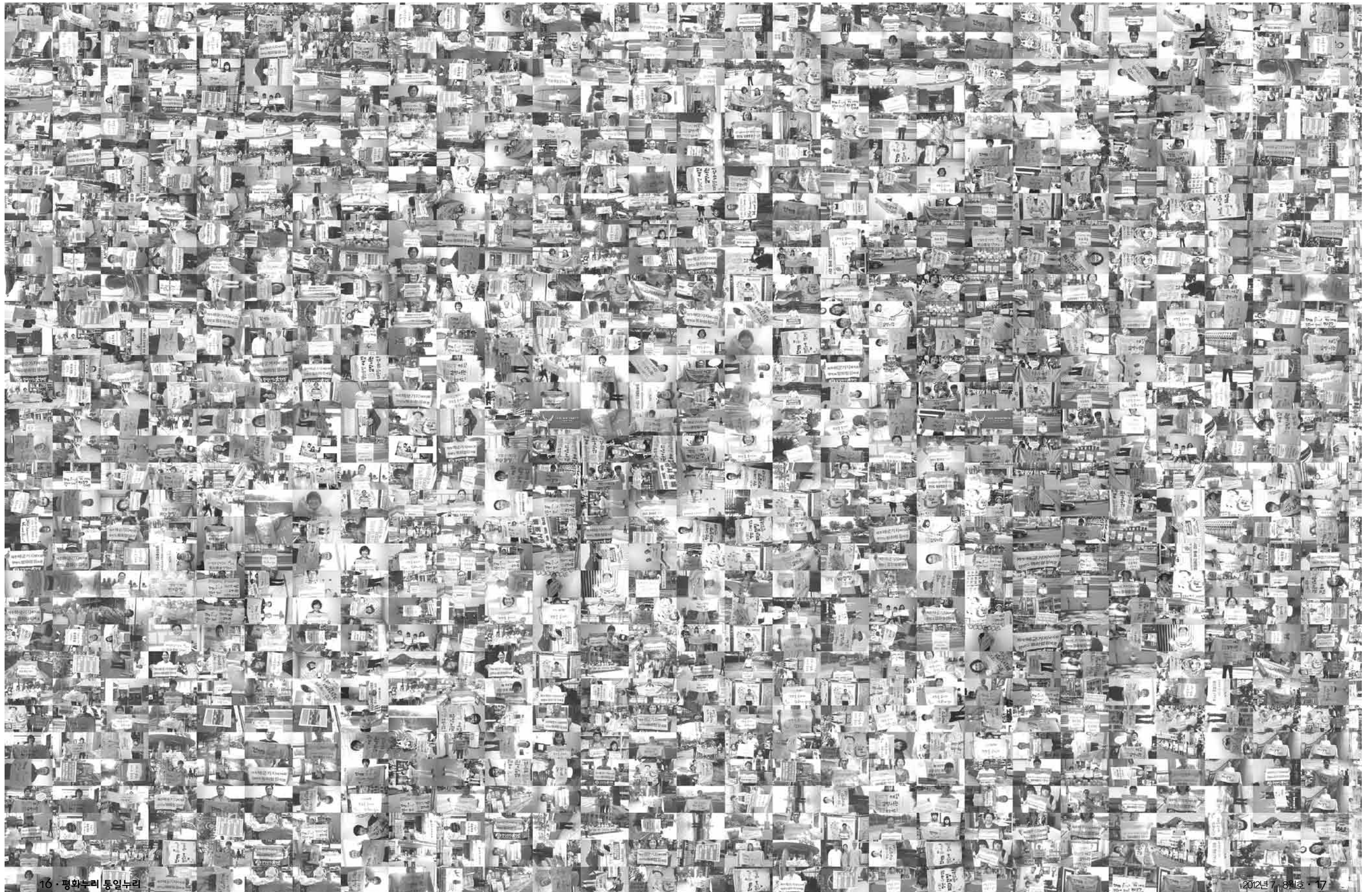
모처럼 귀한 사진을 얻었다. 평통사 세분 상임대표가 나란히 청와대 앞에선... 임기 내내 남북관계 파탄의 새역사를 개척해 온 가카를 규탄하는 1인시위도 하고, 마무리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5.24조치 철회하라” “6자회담 북미회담 발목잡기 중단하라”



1950년 7월 26일, 피난가던 노근리 주민들을 미군이 학살하였다. 희생자만 200여명. 미국은 계속 학살을 부인했으나 1999년 AP 기자가 피난민을 ‘적’으로 취급할 것을 명령한 미군 공식문서를 찾아내면서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대전충청평통사 원용철대표와 장도정국장이 이른 아침 학살현장인 쌍굴에서 1인시위를 하고 노근리 주민들을 만났다. 위령제를 준비하던 주민들이 요구한다. “전쟁을 끝내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참가자가 인증사진 찍기에 참여하였다. 비정규 노동자들과 청소노동자들, 학생들의 집단 참여가 돋보였다.



찬밥 신세가 되어 버린 통일문제

김 진 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최근 3주 가까이 눈병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초기에 폭 쉬었으면 이렇게 오래 고생할 병은 아니었는데 강연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조금 무리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대학생들과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진 뒤에는 경상대학병원 응급실 신세까지 지고 왔네요. 눈이 아프니 무언가를 보는 시간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문, 뉴스를 못 보는 건 은근히 속상했는데 회복하고 처음 본 신문에서 아래 기사를 읽은 뒤에는 그런 속상함이 사라지더군요.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이처럼 심란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지요.

『한겨레』 2012년 7월 24일자 1면에 실린 기사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지난 5월 20일~6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19대 국회의원 사회정책의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정책 분야는 ‘경제민주화’(42.5%), ‘복지노동’(23.5%), ‘정치개혁’(19%), ‘남북관계’(6.5%) 차례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37.3%) 정치개혁(22.9%) 복지노동(20.5%)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49.5%) 복지노동(25.7%) 정치개혁(14.9%) 차례로, 통합진보당은 복지노동(37.5%) 경제민주화(25%) 차례로 관심을 보였다.”


응답자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수준인 200명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이렇다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도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견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의회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정부의 독주도 벌써부터 눈에 훤히 보입니다. 민족 분단이 초래한 고통을 수많은 국민들이 받아왔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이들이라면, 연평도 포격전처럼 ‘국지전쟁’ 수준으로까지 악화된 남북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넘게 멈춰 있는 통일열차를 다시 달리게 하는 걸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6.5%’라니요. 강제이산과 분단, 그로 인해 셀 수도, 측정하기도 힘든 상처로 신음하는 민족의 정치인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히 안타까운 건 17대, 18대 국회에서 몇 배나 의원 숫자가 많은 민주당에 전혀 뒤지지 않는 통일 열정을 보여줬던 통합진보당의 ‘퇴보’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조사 결과처럼 당 소속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통일문제에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박지원, 7월 17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여야가 함께 촉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비해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첫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심상정, 7월 18일)에

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는 평화 관리에 총체적으로 실패했을 뿐입니다”라고 비판한 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연설 사이에는 절대 가벼이 볼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요 의무로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평화 관리’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민주당은 여야가 뜻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에 하루빨리 나서자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안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추상적인 자기 목표만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한·일군사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밀실추진 비판과 함께 “한·일군사협정은 북한-중국-러시아 북방 3각을 긴장시키고,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의 대결 구도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 협정이 몰고 올 대외적 파장까지 경고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밀실추진 비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없는 평화 관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적대적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건 아마도 ‘대화’가 아닌 ‘힘의 우위’ 또는 ‘힘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평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 관리라는 목표를 내걸으려면 필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먼저 또는 함께 표명하는 게 맞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관리만을 전면적으로 주장한다면 통합진보당 역시 힘으로 북한을 누르려는 새누리당과 같은 부류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다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된 건가요? 설마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오늘날 자신의 정치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어쨌든 통일문제가 19대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에서 빠지고, 심지어 통합진보당의 관심권 밖으로도 벗어난 건 현실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통일의 절박성을 그들에게 좀 더 호소하지 못한 저를 반성합니다.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몇 년 간 찬밥 신세였다 세계적 이슈로 부각된 건 전적으로 평통사를 포함한 수많은 단체와 개인의 실천이 쌓인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다시 ‘뜨거운 감자’로 만들려면 저를 포함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눈 부릅뜨고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요즘처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분단’되어 다투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만나더라도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참 심란한 여름밤입니다. 

대중적 · 문화적 아이콘으로 알아보는 유쾌한 낭만의 쿠바!

안 병 순 구로금천평통사



기행 참가자들과

쿠바! 하면 언뜻 무엇이 떠오를까, 가장 대중적 아이콘은 무엇일까! 대체로 꼽아보면 모히토(mojito), 아바나클럽(Habana Club), 시가(Cigar), 의료봉사, 녹색혁명(생태농법), 쿠바혁명(1959년), 라틴음악과 라틴댄스, 체 게바라(Che Guevara),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올드카(old car), 올드건물(아바나 구시가지), 말라콘(Malacon)해안, 미국 경제봉쇄(1961년), 해맑게 웃는 어린이들, 쿠바 야구, 헤밍웨이와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 쿠바의 연인(한국 독립영화),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수용소, 쿠반파이브(Cuban Five), 사탕수수과 유기농 설탕, 빨마레알(palma real, 대왕야자나무, 쿠바 國木) 등등일 것이다.

쿠바는 중남미에서 최고의 안정된 치안을 자랑한다. 그 러기에 중남미 국가 중에 여행객이 많이 몰린다. 요즘 쿠바 여행 관련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많이 팔린다 한다. 그렇지만 쿠바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도 흔히 떠올리는 쿠바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음에 적지 놀라움을 금치 못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나 교역(현재 KOTRA, 현대중공업 진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들만의 아이콘은 위에 열거한 것처럼 수도룩하며 그 이상일 것이다. 이제 서툰 분석을 뒤로 하고 인간의 감성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로 한다.

뭐니 뭐니 해도 쿠바와 체 게바라는 불가분의 관계다. 주인도 판권도 없는 체 게바라 사진은 혁명 주인공의 뜻과 무관하게 온 세계를 누비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체 게바라에 여전히 열광하고 있다. 그렇다. 심장 터질 듯한 그의 강렬한 눈빛은 우리에게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구로금천평통사 안병순 공동대표가 지난 2012.4.20.~5.8. 일정으로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주관 하에 쿠바 메이데이 국제실천단 일원으로 쿠바를 다녀왔다. 지난 5월호(통권 115호) 부터 안병순 대표의 여행기를 10회에 걸쳐 실는다. 여행기는 공무원 U 신문에도 동시에 연재된다. - 편집자 주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며 늘 우리 곁에 서 있다. 그의 영원한 혁명동지 피델도 라울도 쿠바의 영웅 중에 하나가 되어 기려질 것이다. 쿠바에는 살아있는 자의 동상은 없다. 또 우상도 미화도 없다. 생존 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만 전해질 뿐이다.

올해 쿠바혁명 53년, 최근 10년을 보면, 쿠바 관련 서적과 자료들이 정치 · 사회 · 경제 · 농업 · 교육 · 관광 · 의료 · 문화 ·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쿠바 혁명 이래 그들의 새로운 혁명과 변화에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들의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다. 내부 모순을 극복하며 새로이 변화 · 발전하는 것, 혁명의 진화이리라.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난해보이지만 유쾌한 낭만이 있는 도시 아바나, 어딜 가나 라이브 공연 즉석 댄스 파티가 열리는 쿠바다. 라틴 댄스인 살사춤 · 삼바춤을 보려면 홍대앞보다도 쿠바를 가면 적격이다. 율여름 시원한 그들의 열정과 함께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개도 고양도 춤추는 정열의 나라 쿠바, 최미선 지음>란 책이 있겠는가! 쿠바인들은 춤의 에너지가 일상 속에 녹아있는 듯하다.

모히토, 아바나클럽, 시가 등은 쿠바가 내로라하는 세계제일의 명품이다. 피델도 게바라도 헤밍웨이도 즐겼다는 모히토와 시가. 아바나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농촌을 가보자! 농부도 시가를 물고 쟁기질을 한다. 모히토는 쿠바의 전통주이자 럼주카테일(아바나 클럽+마티니+설탕+박하잎+얼음)인데 제조법이 아주 독특하다. 모히토의 독특한 맛은 맛보는 이의 가슴을 은근히 뜨겁게 달군다.

헤밍웨이가 쿠바혁명으로 추방당하기 전 게바라와 만나 모히토와 시가를 즐기며 정담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헤밍웨이가 특히 좋아했던 술은 모히토와 다이키리(Daiquiri), 쿠바 리브레(Cuba Libre)와 더불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쿠바의 3대 칵테일이다.

아바나클럽은 술집이 아니고 술이름이다. 주로 3년산 7년산이 여행자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다. 세계3대 럼주의 하나이자 세계 최고다. 럼주는 제조 원료가 사탕수수이다. 시가는 담배와 다르다. 제조법도 꺾연법도 다르다. 시가를 담배처럼 피우면 죽을 수도? 그러니 입안에서 향을 음미하며 내뿜어야 한다. 처칠의 시



쿠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멋진 춤



산타클라라의 체 게바라 기념비

가 사랑은 두말하면 잔소리, 케네디도 쿠바를 봉쇄했지만 시가를 사랑한 나머지 시가만큼은 봉쇄하지 못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의료봉사, 생태농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의료와 생태농업은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국제연대와 평등 이념을 실천하는 쿠바, 1998년 허리케인이 중남미를 할퀴고 갔을 때 의사들을 파견하였다. 베네수엘라에 2만명 파키스탄에 3천명 그밖에 세계 곳곳에 의사를 파견하여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전생애에 대해 무상의료가 철저히 지켜지고 가정의 제도와 예방의학의 발달된 나라, 해서 중남미의 장수국이 되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 쿠바는 의사 파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의사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나이 10년만 젊었어도 도전해보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1991년 구)소련의 원조가 끊김으로서 식량위기가 오자 역으로 유기농법으로 녹색혁명을 이룬 나라 쿠바. 특히 도시근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태농업은 세계 최강이 되어 국제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비록 올드카로 여행을 하고 낡은 트랙터와 주로 가축으로 농사를 짓지만 그들의 농사는 자립농법과 농업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쿠바는 1991년 미국 경제대봉쇄 이후 불과 10년 만에 43%의 식량자급률을 100%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바나 구 시가지 올드건물, 10km가 넘는 말라곤 해안은 빼놓지 말아야 할 볼거리이다. 1519년 스페인이 건설한 아바나는 17세기까지 카리브해 해양건축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은 인구 200만의 대도시이지만 구시가지는 바로크와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이 남아 있어,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식민시대가 양산한 건축물, 그 거리에 데이트를 즐기는 청춘남녀가 밀애를 즐기고 그 골목마다 청소년들이 뛰어논다. 다른 골목엔 음악이 나오고 화끈한 성인남녀의 춤판이 벌어진다.

뜨거운 낮더위의 맹위가 한풀 꺾이며 10km에 이르는 말라곤 해안 방파제에 카리브해 건조한 바람이 분다. 해안에 모인 인파 무리 위로 붉은 석양빛이 잠들고, 바로크 건물 옆으로 태양빛 그림자가 조용히 누워 초저녁의 오묘한 낭만을 부른다. 여행자도 방파제를 따라 가며 여수(旅愁)를 달랜다. 인디오 투쟁과 멸족, 흑인노예들의 저항, 독립투쟁, 반독재투쟁과 혁명성공으로 이어진 슬픈 역사의 외침은 지금 승리의 너울을 타고 말라곤을 넘어 아바나로 들어간다.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쿠바에서 낭만은 오묘함이 있다. 아마 혼혈인(메스티소, 물라토)이 51% 이상(동양계 1%)으로 구성된 국가라서 그런지 남녀 간, 인종 간에 존재하는 흑백황의 오묘한 조화 속에 동양인의 눈에는 야릇하면서도 평화로운 낭만으로 다가온다. 장수국가이면서도 어딜 가나 어린이들은 넘쳐난다.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신부 없고, 예쁘지 않은 어린이가 없듯이 쿠바에는 예의 오묘한 인종의 조화로 인하여 쿠바 어린이의 해맑게 웃는 모습은 유난히 돋보인다. 재잘거리고 웃고 뛰어가고 장난치고 넘어지고 울고 춤추고 싸우는 그 아이들의 일상은 천상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지 않다.

쿠바 야구, 헤밍웨이와 ‘노인과 바다’, 쿠바의 연인 등은 쿠바의 또 하나의 문화코드이다. 세계야구선수권 세계1위, 비록 망명 형식이지만 미국 메이저야구 선수로도 진출한다. 이는 시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필요

에 의해서이다. 해외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헤밍웨이의 단골 술집, 사방의 벽과 식탁들이 온통 낙서로 가득한 라 보데기타 델 메디오(La Bodeguita del Medio), 엘 플로리디타(El Floridita), 지금도 이 두 술집은 헤밍웨이의 흔적을 더듬어가며 쿠바 칵테일의 독특한 맛을 즐기려는 외국인들로 언제나 초만원이다. 헤밍웨이는 쿠바를 끔찍이 사랑하여 20년(1939~1960년)이나 살면서 코히마르(Cojimar) 마을을 배경으로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여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쿠바의 연인’은 독립영화이다. 한국인 여성과 쿠바인 남성과 벌어진 실제 연애담이다. 2010년 12월 개봉되어 최근 5월 경기도청 상영까지 개봉관과 대중공간을 이용하여 장기상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영화는 ‘본격 연애 다큐’란 독특한 장르로 쿠바 남자와 한국 여자, 게다가 무려 10살 차이나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 아바나와 서울을 오가며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숨김없이 사랑하는 그들만의 평범하지만 독특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그들은 “당당히 드러내며 마음껏 연애하라!”고 외치고 있다. 필자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감독인 정호현 씨와 남편 오리엘비스 씨를 쿠바 그들 집에서 만나 그들의 아름답고 멋진 삶을 본 적이 있다.



쿠바 혁명광장에서 노동절 행사가 열리는 도중


미국의 경제봉쇄, 1961년부터이다. 오바마 정권이 예전보다는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봉쇄의 고삐는 여전히 쿠바경제에 고통을 주고 있다. 쿠바인들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타나모기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그 중 미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침해가 극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기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권 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의회와 여론의 반발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쿠바 남동쪽 관타나모만에 위치한 면적 117km²의 관타나모만 해군기지(Guantanamo Bay Naval Base)는 쿠바 속 미국 땅으로 불린다. ‘기트모(Gitmo)’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는 뉴욕 맨해튼 크기의 이기지는 카리브해 지역 함대의 전략 거점이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이 해군 기지의 일부분. 미 해군 기지가 쿠바의 심장부에 세워진 계기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이 당시 쿠바를 식민지배하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기지를 세운다.

이후 쿠바가 독립하자 미 정부는 1903년 2월 쿠바 초대 대통령인 토머스 에스트라다 팔마와 연간 2,000달러에 상당하는 미 금화를 내는 조건으로 관타나모에 대한 임대협정을 맺는다. 34년에는 사용료를 연간 4,085달러로 인상하며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협정을 파기할 수 있도록 불평등 조항을 삽입한다. 59년 쿠바혁명으로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의 심장에 꽂힌 단검’인 관타나모 기지 반환을 요구하며 사용료 수납을 거부하고 있다.

일명 ‘쿠반파이브(Cuban Five, 쿠바인 5명)’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8년 9월 쿠바인 5명을 미국은 플로리다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하여 체포하고 무기징역형 등으로 그들을 수감하고 있다. 미국은 그들의 활동을 테러활동으로 보고 사법처리 하였고 쿠바는 테러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에 제보하여 이를 막고자 하였다면서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가족면회권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방된 1명에 대해서도 억류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쿠바의 도시 거리 곳곳마다 각종 홍보판을 설치하여 쿠반파이브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과 석방을 부르짖는 그들의 노력은 가히 처절하다 못해 안쓰럽기조차 하다.

쿠바에는 아직도 사탕수수가 적잖이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어 휴경지가 꽤 많은 편이다. 그러기에 비교적 손쉽게 전통적으로 가꾸어온 사탕수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물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면적이지 못하다. 사탕수수에서 생산되는 쿠바 유기농 비정제 설탕은 흔히 정제된 다른 설탕과는 질이 다르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설탕이다. 이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필자도 쿠바여행 시 2kg 봉지를 사가지고 와 요리에 사용한 적이 있다.

쿠바의 대중문화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경제봉쇄로 인하여 개방성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문화적 에너지와 정열은 대단히 크고 높다 하겠다. 그들만의 문화적 감수성과 독창성은 단순히 음악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함축한 모든 분야에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라움에 전율하고 만다. 불필요한 잔가지를 스스로 버리고 외출기로 곧추세워 우뚝 솟아있는 대평원의 빨마레알, 이 대왕야자수는 쿠바땅 곳곳에 서서 평화로운 그늘을 만들며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는 쿠바인의 기상을 웅변하고 있다. 



아바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는 플라자 델 라 카페드랄



쿠바 혁명박물관 내 '얼간이들' 코너
'독재자 바티스타야,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줘 고맙다.'
'레이건야, 우리의 혁명을 강화하는 데 도와줘 고맙다.'
'부시야,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도와줘 고맙다.'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116호를 읽고 - “용감한 분회원들~~!!”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이번 소식지는 우리 회원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우리 소식지가 학술지에서 이를 그대로 소식지로 변신한 듯한 느낌입니다. ㅎㅎ. 회원 글도 영화를 본 소감, 강의를 들은 소감, 소식지 모니터링까지 아주 다양해서 모처럼 맛있는 간식을 먹은 기분이라는 전체 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대전충청평통사 조수현님의 글이었습니다. 저희 분회는 우리 소식지 내용이 너무 무거워 일반 회원들이 읽기에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수현님은 우리 소식지의 무거운 내용들이 일반 회원들에게는 정보의 허기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 소식지의 고유한 특색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특집으로 실린 효순미선10주기 관련 기사는 우리가 점점 잊어가고 있는 효순미선이를 되살려준 기사였습니다. 10주년 추모 행사 사진이 많이 실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었고요, 행사의 취지나 효순미선이 추모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글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효순미선 추모비를 제작한 김운성 작가님의 작품 설명을 친절하게 실어서 추모비에 대한 감동이 더 깊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표지 사진입니다. 표지 사진 관련 기사를 찾기 위해 소식지를 뒤적였지만 찾은 거라곤 표지 안쪽 사진설명한 짧은 글이 다였는.... ㅠㅠ 효순미선이 기사가 특집이었으니 만큼 추보조형물 ‘소년의 꿈’을 소식지 표지로 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세상툭아보기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기사도 시기적절하였을 뿐 아니라 한일군사협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글들은 우리 회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지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읽기에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내용이 짧았습니다.

제목 보고 이번 소식지 모니터링이 신랄할 것으로 기대했다고요? 불평 대신 관심으로, 지적 대신 격려로, 짜증 대신 웃음으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평화분회원~~ 



〈평화누리통일누리〉에 참여하세요~

사진이야기, 여행기,
모임 참가 후기,
영화평, 서평 등
생활글을 모집합니다.

마감 : 매월 15일

메일 : spark946@hanmail.net

담당 : 홍보팀
(02-711-7292)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확산되는 원전 재가동 반대, 모든 원전을 폐쇄 하기 위한 투쟁 수상관저 앞 항의행동에 참여하여

츠치야 겐지 AWC일본연락회의 (번역 : 나가야 유키코)

경이로운 속도로 확산된 수상 관저 앞 항의행동

내가 처음 수상관저 앞 항의행동에 참여한 것은 4월 6일이었다. 주최는 ‘수도권 반 원전 연합’이라는, 트위터로 연결된 원전 반대 활동가들네트워크다. 수상 관저에서 보면 차도 건너편에 국회 기자회견이 있다. 그 앞 인도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 참가자들이 사회자가 하는 구호를 따라 ‘재가동 반대!’를 외치며 그 사이사이에 참가자들이 한마디씩 짧은 발언을 했다. 후쿠시마에서 피난해 온 주부, 반 원전 활동가들, 20대 알바생 등이 절실하게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참가자 수는 1,000명 정도였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운동적 가능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설마 나중에 10만 명이 넘도록 확대된다고는 꿈에도 몰랐다.



7/6 수상 관저 앞 항의 행동

6월 29일 저녁, 경제산업성 앞에 작년 9월부터 천막을 치고 원전 폐쇄를 호소하고 있는 ‘탈 원전 천막촌’을 방문한 나는 그후 수상 관저 앞으로 걸어갔다. 일본 관료가구가 집중되는 ‘가스미가세키’. 여기서 수상 관저까지는 10분정도 걸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외무성을 지나가서 내각부로 가는 보도를 건너기 전에 이미 보도에서 넘쳐 나온 사람들이 가스미가세키 쪽으로 역류하기 시작했었다. 관저보다 훨씬 앞에 있는 나는 오도가도 못한 채 서 있어야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인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평소 반전 반기지 운동이나 차별반대 운동에서 만나는 시민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들이나 양복 차림 회사원들, 멋진 옷을 입은 젊은이들, ... 내가 잘 아는 기성 운동권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파를 헤치며 수상 관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연히 옆에 있던 몇 명에게 말을 걸어 보

았다. 어떤 계기로 이 행동을 알았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에서 알았다고 대답했다. 이 시점에서는 대형언론사들은 이 항의행동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었다.

원래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직후부터 정부와 전력회사의 공식견해만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불신감은 일본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항의행동을 목살하는 언론에 대해 불신과 초조함을 많은 참가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덧붙여야겠다. 그런데 보도를 메운 시민들이 금방 차도로 넘쳐 나왔다. 경비를 켜던 경찰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였다. 수상 관저 앞 6차선 도로는 ‘재가동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에 의해 ‘점거’되어 버렸다. 무려 20만 명의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노다 수상에게 오오이 원전 3호기 4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노다 수상은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양해를 얻었다고 하면서 재가동을 감행했다. ‘재가동 반대’를 유일한 구호로 진행되어 온 항의행동도 재가동을 계기로 ‘참가자가 많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6일에는 비도 왔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6월 29일과 똑같은 규모의 시민들이 이미 거기에 모여 있었다. 시민의 분노를 가볍게 뱉던 나는 크게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관저 앞에서는 사민당과 공산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신당 일본의 다나카 야스오 대표,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도 달려 와 있었다. 이러한 의원들이 원전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은 확실히 반 원전이라는 여론에 편승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 일세를 풍미한 록그룹 YMO의 멤버인 사카모토 류이치도 등장했는데 그는 폐쇄적이고 체제융합적인 연예계에서 반 원전을 주장하는 많지않은 거물 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반 원전 운동은)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원전이 1~2개 정도 재가동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각오하고 원전 반대를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연설하는 예술가 뒤편에서는 경찰의 규제선을 뚫고 나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지난번과 똑같이 차도 쪽으로 몰려갔다. 관저를 지키기 위해 경찰 차량이 출동해서 옆으로 나란히 주차했다. 경시청 기동대가 스크럼을 짜고 시위대를 막으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대열은 한발 한발 밀어붙인다. 비오는 가운데서 모두 흠뻑 젖었다.

얼마 후에 주최측이 종료 예정 시간이 되기 전에 ‘해산’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항의행동을 계속해도 원전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 해산합니다’. 경찰들이 강제적으로 시위대를 폐제시키려고 하는 긴장상태에서 시민들이 서서히 후퇴를 시작했다.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연설하고 있다.

그 다음주에도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상 관저 앞에 몰려갔는데 이쯤되니 언론들은 이 항의행동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 보도하였다.

나도 모르게 떠오른 60년 안보 투쟁과 한국의 노동자대회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도를 메우고 있는 시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내가 연상한 것은 흑백영상으로 기억되는 ‘60년 안보투쟁’이었다. 당시 일미안보조약을 개정려는 자민당 기시 노부스케 수상에 대



해 반대하며 ‘전학련’을 앞세운 노동자 시민들이 일어나 국회 주변은 수 만의 민중들로 가득 찼었다. ‘전학련’은 격렬한 시위를 하며 기동대의 폭력과 대항했고 그 와중에 동경대 간바 미치코씨가 학살당했었다. 그로부터 벌써 반 세기가 지났다.

안보투쟁 이후 정부는 국회 주변에서의 시위를 금지했다. 그 이래로 이런 규모로 시민들이 수상 관저와 국회를 포위하고 차도를 점거한 일은 수십년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 틀림없이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일본 사회운동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713 국회 앞 항의행동.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었다.

또 하나. 차도를 점거하고 투쟁하는 모습은 내가 10년 전에 한국 서울을 방문했을 때 참여한 ‘노동자 대회’를 상기시켰다. 수만 명의 노동자 학생들이 가두를 점거하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행진을 시작하자 안전모를 쓰고 각목을 손에 쥔 금속노조원들이 청와대 쪽으로 진군하다가 길을 막고 있는 경찰들과 부딪치는 모습을 목격했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상 관저 앞 항의행동은 평화적 시위이지만 노다 수상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가진 참가자들이 경찰의 규제를 뚫고 도로를 (일시적이지만) 민중의 자립적인 공간으로 해방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본 노동자대회를 떠올린 것이다. 설마 일본에서도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을 줄은 전혀 몰랐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직후에 정부는 ‘지금 당장 건강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텔레비전에서 반복했고 방사능 확산 정보를 은폐했다. 동경전력회사는 ‘상상 외의 천재’라며 사고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변명했다.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반복해 온 원전 추진파 학자들은 침묵했다. 이러한 거짓말과 무책임, 사람의 목숨보

다 돈벌이를 우선하는 ‘원전 마피아’에 대한 분노는 지난 1년 동안 가라앉기는커녕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노다 수상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수습되었다’고 선언하며 올해 5월 5일부터 두달정도 계속해 온 ‘가동 원전 제로’상태를 종료시킬 결정을 했다는 점이 이번 항의행동이 확산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시민들의 분노의 심층에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다.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지배에 지친 유권자들이 ‘국민 생활이 최우선’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민주당에게 기대를 하고 정권 교체를 실현하면서 출범하였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후텐마 기지 현역 이전’이나 필요없는 공공사업을 일소한다는 공약은 아무것도 실현 못했을뿐만 아니라, 반대로 공약에 없던 소비세 증세, TPP협상 참여 등을 자민당과 결탁하면서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 역시 전력회사를 필두로 하는 재계와 대형은행 등의 요구에 응하면서 ‘국민 생활은 뒤로 미루고’ 밀실에서 소수의 각료들끼리 결정 해 버렸다.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기대한만큼 배신당한 실망감도 컸다. 항의행동에서는 ‘재가동 반대’와 함께 ‘노다 정권 타도’라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유다.

항의행동에 대한 내부적 비판

한편, 수상관저 앞 항의행동의 방식에 대해서 참가자 속에서 적지 않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나는 단체 깃발을 내세우거나 원전 반대 이외의 구호를 하는 것을 주최측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60년 안보 세대인 어떤 노인은 오키나와에 다시 배치되는 미군 수송기 ‘오스프레’ 반대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항의행동에 참여했다. 그런데 주최측이 깃발을 세우지 말라고 규제를 해서 실갱이가 벌어졌다. ‘원전도 미군기지 문제도 근원은 하나다’고 그 분은 인터넷 상에서 분개하였다. 노동조합 깃발을 세우려고 해서 주최측과 입싸움을 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주최측인 ‘수도권 반원전 연합’의 중심 인물들은 기성 운동권 출신이 아니다. 그들은 기성 운동권의 운동 방식으로는 참가자들이 많이 모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단체 깃발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인, 아주 보통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적인 시위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일반 시민이 단체 깃발이 숲처럼 솟아 있는 가운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다만 단체 깃발이 금지되는 한편에서 ‘히노마루’(일본국기)가 허용되는 것은 이상하다. 이것은 모순되고 운동의 성격을 왜곡시킨다. 원래 원전이란 거의 모두가 인구가 적은 중소지역에 지어진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 차별구조가 없으면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또 다단계 하청구조에 편입된 하층 노동자가 피폭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운전하지 못한다. ‘히노마루’가 상징하는 천황제와 내셔널리즘은 그러한 일본의 원전이 갖고 있는 차별적 구조를 은폐해 버린다.

항의행동에 대한 내부적 비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경찰과 지나치게 타협적이다’라는 점이다.

6월 29일 차도 ‘점거’는 획기적이었지만 그 다음주부터 경시청이 경비 체제를 크게 강화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입구를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봉쇄하고 인도에서 차도로 나가지 못하게 강고한 철책을 설치했다.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을 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는 노인까지 무자비하게 쫓아냈다. 그러한 경찰들의 경비방식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많았지만 주최자 쪽은 경찰의 지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같은 인상이 있다.

경시청은 그들이 생각하는 ‘치안상’의 이유에서 경비를 하는 건 물론이고, 가능한 한 항의행동을 작고 협소한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정치 판단을 갖고 있다. 반 원전 투쟁이 반 정부운동으로 발전될 것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 주최측은 경시청의 의도를 간파하고 끈기 있게 교섭을 해야 하는데 경찰의 규제와 싸워 온 좌파 운동권 입장에서 보면 주최측은 경찰에 대해 너무 많이 타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솔직히 말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재가동 반대-원전 폐로를 내세운 반정부 투쟁은 확산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는 ‘원전 반대’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고조를 경험하고 있다. 운동 내부의 문제점은 앞으로 운동이 발전되어 가면서 꼭 해결될 것이다.

이번 항의행동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동원 방식이 아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올바른 평가지만 그렇다고 이번 항의행동에 ‘노동자’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떤 입장을 가진 노동자인지가 문제다. 비정규직이고, 저임금, 불안정적 취업을 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이번 운동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서는 보인다.

실제로 주최측 중심인물들은 젊은 비정규직 간병노동자나 건물 내장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물론 모두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정규직 대공장 대노조 소속인 노동자보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많다고 보는 게 마땅할 것이다.



7/16 ‘굿바이 원전’ 행사

나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인데 현재와 미래 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또 옛날 학생운동 활동가처럼 투쟁을 그만두고 취직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원전 운동이 일회성 운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기는커녕 일본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계급 모순을 내포하면서 더욱 발전되어갈 것이다.


또 재가동 반대투쟁의 직접적인 초점이 된 후쿠이현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현지투쟁이 진행되어 AWC일본연락회의에서도 회원들이 달려 갔다. 6월 30일에는 후쿠이현과 전국 곳곳에서 결합한 650명이 참여해서 반대집회가 크게 성공되었다. 또 이와 동시에 오오이 원전 정문 앞에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을 이용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400명이 “아큐파이 오오이(오오이를 점령하라!)”를 외치면서 빗발치는 비 속에서 경찰 기동대와 실력으로 대치하면서 7월 1일 심야까지 창의성이 풍부한 점거투쟁을 전개해서 재가동 반대투쟁을 해냈다는 사실은 특필할만하다. 또 동경 수상 관저 앞, 오오이 현지에서의 투쟁과 함께 오사카와 교토 등에서 간사이전력회사에 대한 포위투쟁이 지금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7/16 ‘굿바이 원전’ 10만명 집회 _예상을 뛰어넘어 17만명이 참여하였다.

7월 16일에 개최된 ‘굿바이 원전! 10만명 집회’는 예상을 넘는 17만 명이 모여서 크게 성공했다. 그 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전국에서 반 원전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갈 것이다.

7월 29일에는 수도권 반원전연합 주최로 ‘국회 포위’ 대투쟁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AWC일본연락회의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수만의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원전 마피아’와 맞서며 모든 원전을 폐쇄 할 때까지 싸워 나가려고 다시 결심한다. 그리고 이 운동 속에서 피폭과 생활 파괴에 시달리는 후쿠시마 현 주민들과 연대하자고 호소한다. 동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피폭자를 해방하기 위한 운동과도 연계하면서 일본정부의 핵무장 야망을 막기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한다. 



7/16 ‘굿바이 원전’에 참여한 일본 국민들. (사진 : 아사히 신문)

이명박 정부의 꿈수와 록히드 마틴의 오만 - F-35 도입사업의 문제점

조 승 현 평화군축팀장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운영유지비를 제외하고 도입 비용만 8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무기도입사업으로서 단일 무기거래로는 유사 이래 최대 사업입니다. 현재 F-35의 미국 록히드마틴사, F-15 사일런트 이글의 보잉사, 그리고 유로파이터의 EADS사 등 3곳이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고 본격적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가 배정되었다는 사전밀약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아직 미완인 F-35 기종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시험비행 평가를 대체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방식의 문제점과 묻지도 따지지도, 타보지도 않고 F-35를 도입하려는 방위사업청의 문제점을 Q & A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F-35에 대하여 실제비행 방식이 아닌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비용만 국민혈세 8조원이 소요되는 차세대 전투기를 타보지도 않고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F-35의 조종석 시현장비는 3D 게임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종간을 당기니 전면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륙이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순한 계기판은 스마트폰처럼 손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그제 전투였다.” 지난 6월 28일 서울 장충동에서 진행된 F-35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체험한 한 일간지 기자의 느낌을 적은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3D 게임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뮬레이터를 통해 전투기 성능과 운용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8년간 T-50 개발에 참여했던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 연구소장은 “시뮬레이터는 지상에서 작동되므로 공중에서와는 다른 -50도에서 +80도를 넘나드는 온도의 변화, 지표면에서 5만피트 상공에 이르기까지의 공기 밀도 변화, 저속에서 초음속에 이르기까지 공기마찰로 인한 진동과 소음환경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항공기의 모든 부품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2002년 당시 공군 시험평가단장이던 조주형 예비역 대령 역시 “개발 중인 전투기의 기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비교적 시뮬레이션과 실제 비행시험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투기에 전자장비와 폭격 기능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그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막상 비행을 해보면 시뮬레이션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환경에서 조종사가 느끼는 체감도와 차이가 있다”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기종은 평가 점수를 감점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종을 선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우리가 F-35A에 대한 시험평가를 거부하면 그 기종은 탈락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터 평가 대안으로 F-35 동체 곳곳에 센서를 달아 비행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원격 계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계측을 통한 평가 역시 전투기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방위사업청의 최소한의 요구인 원격계측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방위사업청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F-35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강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록히드 마틴은 여전히 방위사업청의 요구를 거부하는 오만을 부리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록히드 마틴의 오만과 방위사업청의 F-35에 대한 사랑은 F-35 사전 내정으로 밖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은 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4일 미국의 지역 일간지 ‘노스웨스트 플로리다 데일리뉴스’(nwfdailynews.com)는 록히드마틴사의 오브라이언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F-35 개발에 자금을 대지 않았음에도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록히드마틴사가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와 같은 언론보도는 F-35에 대한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35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F-35 도입을 위해 시뮬레이터 평가와 같은 꿈을 동원하고 있으며 록히드 마틴은 F-35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우리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이 묻지도 따지지도 타보지도 않고 도입하려는 F-35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 중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면서 스텔스 기능이 가장 뛰어난 F-35의 도

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경우 적진 침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폭탄과 미사일등을 내부 무장창안에 넣고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력이 떨어지며 작전능력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F-15K의 경우 최대 무기 장착량이 11.1톤인데 비하여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경우 약 8톤 밖에 되지 않으며 작전반경도 F-15K의 경우 1,800Km인데 비해 F-35의 경우는 1,100Km입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체 자체에 많은 장치가 필요하며 외부에 많은 도료를 칠하기 땀에 기체가 무거워져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기동능력이 떨어져 효율적인 전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스텔스 전투기 F-35의 성능에 대하여 “공대공과 폭격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기’, 스텔스 성능, 무장창 추가 등을 모두 좇다 보니 기체가 터무니없이 무거워져 항력이 커졌다”며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 저고도 근접 육상 부대 지원 작전에서는 A-10기에도 못 미치는 한심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F-35 성능에 대하여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은 2011년 12월 의회 연설을 통해 “한 마디로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F-35 제작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능상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발간된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감지기를 통해 전투효율성을 제공하는 미션 시스템의 경우 4%만 검증됐고 미션 시스템에 필수적인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어는 야간투시력 통합과 데이터 전송에서 결함을 보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미 회계감사원은 ‘2400만 개 소프트웨어 라인의 개발과 통합도 여전히 걱정거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타보지도 않고 F-35를 도입하면 버전이 낮고 결함이 많은 시험기 수준의 깡통비행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공군은 노후된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이유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북 전력 비교에서 남한이 우위를 인정하는 분야가 유일하게 공군전력입니다, 국방연구원은 ‘2003~4 동북아 군사력’에서 100 : 106으로 남한 우위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항공 전력은 질적 우위가 결정적으로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는 국방부가 고성능 첨단 전투기의 도입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F-22 랩터와 F-16, 15와의 교전훈련 결과(1 : 144)에 의해서도 입증됩니다.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30대 뿐입니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능력, 전천후 정밀공격능력, 전자전 능력에서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대학교가 2003년 Defense Times에 연재한 전투기 공중성능 비교에서 F-15K는 5위인 반면에 MIG-29는 최하위를 차지하였습니다. KF-16과의 비교에서도 공대공 교전능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 공군 전력 격차는 남한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기 도태된 A-37 및 도태 예정인 F-5E/F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FA-5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KF-X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 전력공백을 우려하여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강행하여야 한다는 국방부와 공군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을 비롯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여권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데?

국회는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올 10월에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경차 한 대를 살 때도 직접 운전해보고 구입을 결정하는데 타보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비용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결정한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 위원장 박근혜 역시 여론에 밀려 “차세대 전투기 역시 세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 국가 이익에 맞게 협상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2002년 2차 F-X 사업과정에서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따라 F-15K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F-15K는 도입 초기부터 미국이 ‘정밀영상위치제공 지형정보’(DPPDB)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작전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엔진이나 레이더 등 핵심부품이 부족하여 2008년 5월 통제로 12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품 돌려막기로 인해 2010년 F-15K 10대중 1대꼴로 비행열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도입한 고성능의 전투기가 전시임무는 물론 평시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 F-15K 도입의 전례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기에 이명박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평의 평화발자국을 남기다 - 슬픔을 간직한 도시 부평 -

김 현 희 독서논술교사/제2회 인천평화발자국 참가자

‘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집안에도 역사가 있듯이 오래된 길에도 역사가 있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 내용 중에 한 대목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어릴 적 고향, 대관령 고갯길을 함께 걸어 넘으면서 그동안 서로가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산 아래까지 내려온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집안 역사, 길의 역사에 대해 오고가며 나누는 대화 속에 아이는 하루 만에 부쩍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제 2회 인천평화발자국의 부평신문 홍보글은 그래서 더욱 눈길이 갔다. 인천 부평이라는 곳에 8년을 살면서 비록 남편과 나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아들 녀석 둘은 모두 인천 부평이 고향이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의 고향에 대해 딱히 아는 것도 없고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 고작해야 부평역사 박물관에 가서 획, 한번 둘러보고 올 뿐 그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게 가슴 아팠다. 그동안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터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직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콤한 아침잠을 청하기에 좋은 일요일 아침, 남편과 아이를 뒤로 한 채 청천동 영아다방 쪽으로 간만에 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평화발자국의 올레길은 인천의 역사 속에 평화가 파괴된 현장을 전문해설가와 함께 탐방하는 식이다. 장수산을 시작으로 조병창 사택지 탐방, 부평미군기지 일대의 현장 탐방, 군수물자 이동한 철길 걷기, 요즘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영공원 탐방 걷기가 우리가 이날 남길 발자국이었다.

장수산 팔각정에서 시작된 첫 강의는 인하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계신 김현석 해설사님의 부평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시작되었다. 이런저런 해설 중 조병창 관련 된 이야기는 듣는 내내 귀를 쫓긋하게 되었다. 산곡동 8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영단주택은 일제 강점기 산곡 3동에서 부평 1동에 걸쳐



있던 조병창과 관련과 관련이 있다 한다. 일본은 1938년 조선병참기지화를 선언하고, 군수공업기지화 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갔는데 부평지역에 군수공장인 조병창이 건설되었다. 조병창 건설과 함께 주변에 하천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영주택과 사영사택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40분 남짓 부평역사의 전반적인 해설을 듣고 장수산 탐방로 길을 따라 뫼골 공원으로 들어서 조병창 사택지가 있는 산곡초등학교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가 걸어간 곳은 영단주택이 있는 곳이었다.

영단주택은 조병창이라는 군수공장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조병창에 들어가면 징용도 면제해 준다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생각해 낸 주택이란다. 주택의 유형은 갑, 을, 병, 정, 무 모두 5종류로 구분하였고, 우리가 영단주택의 맨 처음으로 본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문을 막아놓은 집이었다. 집은 13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마당이 있는 작고 아담한 집이었다. “이 정도의 집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하고 청천동 사택지에 오래도록 사셨다는 일행에게 물어보았더니만 “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본 첫 집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집을 배경으로 차근차근 영단주택지를 걸어 들어간 곳은 산곡시장을 거쳐 가서 지붕이 하나로, 집들이 모두 다닥다닥 연결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었다. 영단주택의 원래의 계획으로는 관리소, 이발소, 유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막바지에 노동자들만을 위한 열악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이런 집이 지어져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설마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까?’ 싶었던 그곳에 답답한 집안 공기를 피해 나오기라도 한 듯한 할머니가 집 앞에 벽돌로 칸칸이 만들어져 있는 화단에서 쉬는 모습을 보며 이곳에 사람이 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더 놀라게 한 사실은 일제 시대 영단주택지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영단주택지 길 건너서 몇 걸음만 가면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정말이지 판 세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영등포, 성북구, 대전, 평양, 청진, 이렇게 영단주택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재개발로 인해 없앨려고 하는데 근대주택 역사라서 남기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중이에요.” 라는 설명과 함께 우리가 지금 걷고 있



는 이곳, 산곡동 영단주택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곳은 없으며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곳이라 하였다. 영단주택이라고 주욱 둘러본 이곳엔 정말이지 100여 가구 남짓한 집들이 즐비하게 골목을 이루며 들어서 있었다. 만약 이곳이 재개발이 되어 없어진다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곳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도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골목이 즐비하게 들어선 건 맞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발길은 우리 탐방팀 외에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골목 어귀 중간중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고추며, 토마토가 사람이 살고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싱싱하게 처마 밑까지 올라타고 있었다.

영단주택을 빠져나와 산곡 중학교 그 근방이 모두 일제 시대 때 비행장이었다는 곳과 미군부대가 있었다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는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미군은 인천 지역을 접수하면서 당시 부평에 있던 일본 군 병참기지를 점령하며 주둔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는 각종 부대들이 차례로 들어섰고 부대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미군들은 이곳을 ‘애스컴시티’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한다. 부영공원 역시 원래는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는데 1994년 미군 부대가 이전한 뒤 2001년부터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걸보기에는 파헤쳐지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생태공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건강한 공원으로만 여겼던 그 공원이 현재는 출입금지공원이 되어 있다.

산곡 중학교를 거쳐 군수물자 이동한 철길건기를 하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부영공원 일대를 걸을 수 있었다. 신문보도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곳 일대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 일어두었을 것이고, 환경오염에 관련된 플랭카드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각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버섯이 그곳에 채소가 심어져 있었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영공원에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소파협정, 반환협상의 과제까지의 해설을 마지막 일정으로 평화발자국의 탐방은 마무리하였다.

부평공원에서 일행은 늦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탐방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평이라는 곳이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가진 도시라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힘이 안에 내포된 도시이

고, 또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어서 안에 슬픔을 많이 간직한 도시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도시가 평화도시의 성격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합니다. 평화 발자국이 그런 측면에서 부평지역에 하나의 단초를 마련해 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김현석 해설사 선생님의 탐방해설 소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단순히 부평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탐방길이 내게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우선은 내 아이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한번쯤 이 길을 걸으면서 부평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 싶어 좋았고, 타향살이인 내게 부평이라는 지역이 한층 더 애정을 갖게 만들었다.

하루동안 내가 걸었던 그길 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을까? 나야 뭐, 이날 행복한 발자국을 남겼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울음을 토해내며 이 길을 걸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리고 하루 빨리 부영공원 일대의 땅이 건강한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구민으로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겠고 평화발자국 올레길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한다.

앞으로 남은 월미도 일대 탐방과 강화도 DMZ 평화올레길,

걷고 느끼고 배우는 인천평화올레 3회, 4회 평화발자국도 기대를 해본다. 



용산의 또 다른 희생자 - ‘두 개의 문’ 을 보고 -

황 윤 미 서울평통사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큐가 어떻게 투영을 했던 2009년, 용산참사 자체보다도 더 비극적일 수는 없을 테니까. 잘 만들어진 다큐를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여섯 분과 유가족, 철거민들에 대한 내 나름의 예의라고 생각하며 진작부터 볼 결심을 하고 있었다.

6월 말, 현장평화기행에 참가한 대학생 친구들과 ‘두 개의 문’을 보고 저녁 먹는 것으로 기행 뒤풀이를 하기로 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일요일 오후, 시간이 맞는 대학생 친구들 다섯 명과 광화문에 있는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이 다큐를 보러 갔다. 이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질지가 무척 궁금했다.

영화는 당시의 언론보도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찰들의 증언과 진술, 법정에 제출된 증거영상을 기본으로 깔고,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와 인터넷언론 기자, 용산사건 대책위 관계자들의 인터뷰로 용산참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철거민이나 유족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의 진술이 주를 이룬다. 변호사나 용산사건 대책위 관계자들의 인터뷰는 진술하기는 했지만 격양되지 않았고, 진압과정을 담은 영상도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었다. 경찰 채증조가 찍은 증거영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시에 이미 방송에서 봤던 것이니까. 용산참사의 비극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은 담담하다고 평할 수 있겠지만 느낌은 가슴을 토크는 어떤 충격 같은 것이었다.

법정에 나온 경찰특공대의 증언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함께 진압작전에 투입된 이 경찰에게 검사가 묻는다. 특공대원을 사망하게 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어진 침묵. 한 동안 답을 못하던 경찰특공대원은 농성하던 철거민에

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그 특공대원은 왜 침묵했을까?

인터넷 언론 기자가 건너편 옥상에서 영상취재를 하며 보았던 사실을 말한다.


건물 건너편 옥상에서 소방호스로 망루에 물을 뿌리고, 망루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을 막으려 방패를 든 경찰과 용역들은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압이 끝날 무렵,

“특공대원 멋지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며 환호했다고 한다. 순간, 난 ‘무슨 이런 XX같은 경우가 있어.’ 했지만 과연 이들은 가해자이기만 할까?

2009년 1월 20일, 망루에 올라 생존권을 지키려했던 철거민들은 물론이고, 이유도 과정도 남일당의 구조도 모른 채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 심지어 농성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말단 경찰들 모두가 이날의 가슴 아픈 희생자라는 사실. 그것도 국가권력에 의한.

영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옆에 앉은 한나가 눈물을 닦는 것 같다. 이미 봤는데도 이런 다큐는 계속 봐줘야 한다며 기꺼이 함께 온 유진이와 나. 적어도 세 명은 영화에 감동을 받았겠구나 생각했다.

영화가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가 있는 영화라서 윤 종게도 김일란, 홍지유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에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다큐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또 당시에 큰 부상을 입어 3년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은 김영근, 지석준님이 곧 있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 4년을 감옥에 갇혀야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탄원서 작성에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가슴 아픈 용산참사의 현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답답하고, 그것이 쌍차나 강정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 국민들의 여론과 모여진 힘이 있어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한다. 이것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이 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회적 문제에는 아예 눈귀 닫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픔을 극복하는데 함께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도.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함께 '찰칵' "꽃겨나는 사람 없게 해 주세요"

강정마을 평화순례를 다녀와서

원 용 철 대전충청평통사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평화순례를 다녀왔다. 이 기간 동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란 일기예보가 있었기에 걱정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였다. 그래서 우리일행은 그 순간을 이용해 제주도청으로 이동하여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4대 종단성직자 평화순례 선포식을 하고는 거리행진을 하며 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대비를 보면서 3시에 있을 기도회와 4시에 있을 미사를 염려하며 급하게 점심을 먹고는 강정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강정마을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예정된 예배였기에 응급으로 설치해놓은 천막에 비를 피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했다.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이 기도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겹겹이 에워싸며 외부와 차단해 버리는 것이었다. 빗소리에 주위는 산만한데다 경찰까지 에워싸면서 순간 예배는 긴장감이 맴돌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 충돌 없이 기도회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미사도 잘 마칠 수 있었다. 하늘도 평화가 무너져가는 강정마을의 현실에 가슴 아팠는지 기도회와 미사 때에는 장대비를 쏟아 붓더니 기도회와 미사가 끝나자 빗줄기가 가늘어져 어느 순간 그쳐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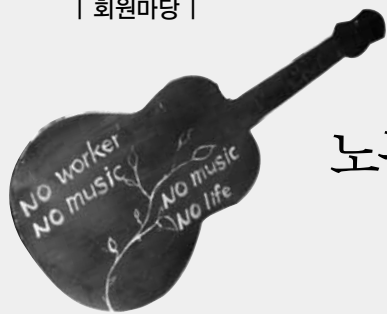
엄숙하게 드러야할 예배가 빗소리와 주위를 둘러싼 경찰들로 인해 산만하고 긴장된 가운데 드러졌지만, 그래도 나는 구약성서 미가서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를 여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나는 미가 선지자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없애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로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러기에 강정에 군사훈련을 하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은 강정을 평화의 고을로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에 비록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 강정의 평화를 지켜가자고 했다.

그러면 평화란 무엇인가? 아다치 리키야가 지은 군대를 버린 나라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평화이야기에서 평화란 민주주의, 인권, 환경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화에서도 다수의 의견만 존중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평화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를 존중하는 이

념이 성립되어야만 바로 공평한 조건에서 대화할 수 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의식이 또한 코스타리카인의 인권의식이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소수자의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런 인권의식이 바로 평화라고 말한다. 또한 진정한 평화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가선지자가 꿈꾼 평화나 코스타리카 국민이 실현해 가는 평화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평화인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의 목사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되물어본다. 나에게 어떤 이는 사회복지기관인 벤엘의집 담당목사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목사면 되지, 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는 질타는 하기도 한다. 많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목사로 살면 되지 왜 자꾸 사회문제에 끼어드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의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일부는 빨갱이목사, 운동권목사라고 하며 운동권 목사에게는 후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벤엘의집을 잘 이끌고 가는 것이라면 사회가 조금은 잘못 가더라도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눈 질끈 감고 벤엘의집에만 전념하면 조금은 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다.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자리, 하나님의 평화가 무너진 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머리인가, 심장인가, 나는 머리도 심장도 아닌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온 마음이 그곳으로 쏠린다. 그러기에 우리 온 마음이 쏠리는 곳, 즉 아픔이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인 것이다. 그렇듯 세상의 중심도 그 사회에서 가장 아파하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파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며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자리는 곳곳에 많이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리,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빼앗긴 철거민들의 자리, 멀리 타국까지 와서 고통 받고 있는 이주민들의 자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자리, 군사기지가 건설되는 자리 등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야 하는 곳은 너무도 많다. 그러기에 14년 전에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라고 고백했기에 찾아간 것이고, 오늘은 강정이 이 사회에서 아픈 곳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목사로서 찾아간 것이다. 비록 빨갱이목사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곳이 바로 목사로서 내가 서야할 자리요, 내가 가야할 자리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평화가 무너진 자리에 평화를 세우라고 하셨기에 그 자리를 찾아 가고 있는 것이다. 살롬. 



노동자가 없으면 음악도 없다 - 콜트콜텍 현장전

오 미 정 홍보팀장



뜯겨진 판넬 뒤엔 창문이 있다. 창밖으로 코를 내밀고 숨쉬는 코끼리.

2007년 직장폐쇄와 정리해고로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긴 황량한 빈 공장에 예술가들이 찾아왔다. 지난 4월부터 공장을 점거(?)하고 작품을 만든 19명의 예술가들이 ‘콜트콜텍전’이란 현장전시를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였다.

공장 4층 상덕 작가의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거대한 코끼리가 창문으로 코를 뺀어 숨을 쉰다. 상덕 작가는 “맨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창문마다 두꺼운 판넬로 가려져 있었다. 창이 넓고 햇볕이 들어오면 노동자들이 판생각을 한다며 창문들을 죄다 막아 놓는다고 들었다. 창문을 막은 판넬들을 뜯어내는 것 자체가 예술활동이었다. 그런데 뜯어내다 보니, 철거만 하고 있길래 판넬과 이것저것을 모아 코끼리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젊은 상덕 작가는 텅 빈 공장안에서 예술적 영감이 마구 솟는 듯 보였다. “드디어 만들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냈다”라며 눈을 반짝였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평통사 회원이기도 한 심자섭 조합원이 “안녕하세요”라는 퍼포먼스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평통사에 재능기부를 아끼지 않는 박정신 작가도 참여했기에 더욱 뜻깊었다.

‘콜트콜텍전’을 이끈 성효숙 작가의 말이다. “5년여동안 2000일이 가깝게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이곳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악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던가. 세상의 전면에 보이는 아름다움의 실체는 뒷면에 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라는 그늘이 있었다. 제일 먼저 한 작업은 콜트조합원 심자섭님과 함께 한 청소퍼포먼스, 그리고 단전, 단수된 곳에서 전기를 켜는 점화 퍼포먼스였다. 벽에 그린 돌고래는 치유의 상징으로, 제주 앞바다에서 보았던 돌고래다. 돌고래가 내는 음파에 치유받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고 이후에도 어디가 아플때마다 그 돌고래들을 보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돌고래와 악기를 연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의 상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은


작업화는 인근 4공단의 대우자동차와 현대 조합원들이 모아주었다. 작업화에 꽃을 다는 행위는 쌍용자동차 22분 생목숨의 죽음에 대한 진혼의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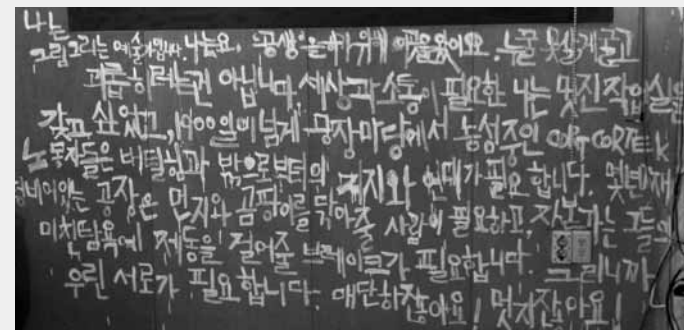
“안내”라는 제목으로 복도 표지판을 작업한 박정신 작가. “처음 공장을 왔을 때 텅빈 이곳이 적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장 한가운데 서서 귀를 기울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다.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는 소리들과 시간이 아직도 가득차 있었다. 내가 그곳을 무언가로 채우기에는 이미 차 있고, 나는 그저 길목에서 안내하겠다”라고.

방중운 콜트 지회장은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콜트 콜텍 자본은 더욱 더 교묘해져 부평

공장을 매각하고, 5월 31에는 2차 해고를 통보했다. 6월 15일에는 철거용역업체가 들어오기도 했다. 2000일 투쟁은 동지여러분의 후원과 지원으로 가능했다. 예술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공장의 먼지와 쓰레기를 치우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언제 용역이 쳐들어올까 긴장과 두려움속에 힘들었던 콜트 콜텍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몸과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심자섭 회원이 낭독한 김강, 김윤환 작가의 〈안녕하세요〉 – 먼지를 모아 글자를 만들었다.

“아직 거기 있나요 계속 거기 있나요 아니 언제나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알지 못했어요, 아니 가끔은 치워버렸지요, 싹싹. 그리고 우리도, 나도 치워졌어요, 싹싹. (중략) 당신을 가장 아래의 자리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미 기타를 생산하지 못하는 공장에서 어쩌면 당신은 우리를 기다렸겠지요, 그러하기에 당신은 우리 없이는 노래를 만들지 못했겠지요, 소음도 사라진, 기계도 사라진 빈 공장 나를 다시 초대하는 당신 고맙습니다.(중략)” 



나는 그림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수십년간 기타를 만들었지만 기타를 칠 줄 몰랐던 노동자들이 투쟁하며 밴드를 결성했다. ‘내가 사장이었다면 노동자들에게 기타강습을 해줬을텐데.’



먼지로 만든 글자 ‘안녕하세요’와 콜트 해고노동자 심자섭 회원

한일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2)

-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문제점

박 기 학 평화 · 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우리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한일 ACSA)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호(116호, 2012년 6월호)에 이어, 이번호에서 한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한일 ACSA)의 문제점을 다룬다. - 편집자 주

1. ACSA는 지구적 규모의 미군군수지원체제

물품 및 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약사)이란 미국 군대와 동맹국 군대가 공동훈련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각자 상대국의 영토에 파견되거나 머물 때 필요한 군수품(보급품이나 서비스)을 상대국 군대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동등한 가치로 되갚는 절차를 정한 협정이다.

미국법전 10편 138장(나토동맹국 및 기타 나라들과의 협력협정)의 2341조는 미 국방장관에게 나토동맹국 및 기타 나라의 정부 등으로부터 군수지원, 물품 및 서비스를 취득하여 미국 밖에 전개하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또 2342조는 미 국방장관에게, 취득한(제공받은) 대가로서 군수지원, 물품 및 용역을 상대국 군대에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미국은 미군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기지에 주둔시키거나 또는 해외 작전지역에 전개하거나 할 때 이 ACSA를 활용하고 있다. 즉 ACSA는 미국이 자국군대를 세계적 규모로 운용하는데서 필요한 군수지원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 미군 군수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2.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일 ACSA

(1) 미국의 대북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미일ACSA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은 잠재적국을 구소련에서 이른바 지역패권국가로 바꾸었고 그 우선적인 표적으로 이라크와 북한을 지목하였으며 이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전쟁 동시 승리전략’(원원전략)을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에서 승리하자 곧 바로 표적을 북한으로 옮겨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함께 대북 전쟁에 대비하는 유사계획 작성에 착수하였다.



2012.7.7 한일 군사협정 전면 폐기 요구하는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에서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언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한 정군(pol-mil)게임(정치 · 군사 각 담당으로 나뉘어 ‘위기’나 ‘유사사태’의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려 행동하는 시뮬레이션)을 1993년과 1996년에 비밀리에 실시하고 여기서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이 미군에 협력할 분야와 영역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미일 신방위지침을 1997년에 만들었다. 신방위지침은 일본방위에 중점을 둔 구방위지침(1978년)과 달리 ‘주변사태’—“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수 있는 사태 등 주변지역에서 일본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때의 일본 자위대의 주일미군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주변사태’는 1차적으로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가리킨다. 신지침은 ‘주변사태’ 때 자위대가 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을 하기로 하고 협력대상이 되는 40개 항목(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 민간공항 및 항만 사용, 기뢰제거, 선박검사 등)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주변사태 때 일본은 자위대의 미군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을 1998년 4월에 제정하였다. 미일 ACSA는 1996년에 처음 체결되었는데 유엔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인 국제지원활동과 같은 평시에만 적용되었다. 그래서 주변사태(한반도 전쟁) 때도 이 ACSA가 적용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정하였다. 이로써 미일 ACSA는 미군의 대북 전쟁 수행을 자위대가 군수지원하는 협정으로, 평시만이 아니라 전시에도 적용되는 협정으로 탈바꿈되었다.

(2) 미군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향해 치닫는 미일 ACSA

2004년에는 미일 ACSA가 일본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사태’(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사태)및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사태 때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 처음 제정된 미일 ACSA에서는 ‘탄약’이 제공 대상 16개 항목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긴 했으나 실제 제공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4년 미일 ACSA 개정으로 ‘무력공격사태’와 ‘무력공격예측사태’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사태 때는 탄약이 제공이 가능한 품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원래 미일 ACSA는 그 정식 명칭(‘일본 자위대와 미국 군대 간의 후방지원 · 물품 · 서비스의 상호제공에 관한 미일협정’)에서 보듯이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에 제공대상이 되는 물품과 용역이 ‘후방지역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개정으로 탄약이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후방지원 제한이 무너졌다.

또한 2004년 개정 때, 미일 ACSA 6조가 새로 추가(신설)되면서, 미일 ACSA가 적용되는 미군 또는 자위대의 활동의 명목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노력의 촉진’, ‘대규모 재해 대처’, ‘기타’의 목적을 위해 자위대 또는 미군이 행하는 활동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라크특별조치법(2003년 제정)에 의거한 자위대의 인도적 지원활동이나 테러대책특별조치법(2001년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협력지원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활동이 미일 ACSA 6조에서 말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노력의 촉진’에 해당된다. 그에 따라 이라크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가 미군에 대해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PKO협력법이 있긴 하나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의 활동은 PKO활동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주둔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은 이 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이처럼 미일 ACSA 6조를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일본 영역 밖에서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국제평화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으로까지 확장되었지만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나 ‘이라크특별조치법’은 한시적인 법이어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현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PKO협력법에 의해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PKO에 한정되지 않고 또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일반법(항구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물론 PKO협력법이나 테러대책법, 이라크특별조치법 등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과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만약 ‘항구법’이 제정된다면 평화헌법은 말 그대로 사문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한반도 유사 때 미군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군 지원도 가능토록 하기 위한 미일 ACSA의 개정 시도

한반도 유사 때 일본이 미군을 군수지원할 수 있는 지리적 한계는 주변사태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변사태법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역 지원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영역 및 일본 주변의 공해로 한정하고 있다. 단 일본 주변의 공해에서의 자위대의 주일미군 협력은 전투행위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 한정된다. 이는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 주변의 공해에서 전투행위가 있더라도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려 한다. 만약 주변사태법이 일본 주변 공해에서 미군이 전투행위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개정되면 일본 주변 공해에서 북한에 대한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해서도 미일ACSA에 의거해 자위대는 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변사태법이 일본 주변 공해에서 군사작전하는 미군과 그 연합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고 또 한일 사이에 ACSA가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는 일본 주변 공해에서 작전하는 한국군에 대해서도 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본총리 자문 기구의 보고서(2012.7.6)처럼 평화헌법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는 미군에 대한 공격을 자국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직접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경우



2012. 7. 3. 한겨레 - 한미일 군사훈련

라도 일본 주변 공해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군수지원도 허용될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개정 및 한일ACSA의 체결 시도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군대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3. 대북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한 한일 ACSA

한일 ACSA의 첫 번째 목적은 대북 전쟁 시 한·일 군대 간의 상호 군수지원이다.

이 경우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파견될 수 있는 일본 국내법의 제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평화헌법을 해석하거나 평화헌법 자체를 개정하면 이런 국내법 제정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처음 체결되는 한일 ACSA는 한국 영역에서의 한일간의 군수지원을 직접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국영역 밖에서 평시에, 인도적인 국제구조활동이나 PKO, 공동훈련 등의 차원에서 한일 군대간 군수지원을 규정하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적용이 유사 때 또 한국 영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인 국제구조활동의 명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원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대북 군사적 조치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일 ACSA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을 전제로, 그 경우 한국군대가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군수지원 그리고 일본 자위대로부터 한국군대가 받을 수 있는 군수지원을 상정하는 협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야는 소해작전(기뢰제거), 대잠작전, 잠수함구조, 미사일방어라 여겨진다. 한일 ACSA는 바로 이런 분야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일본 자위대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해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개전 이전에 연합증원전력 전개 거부를



2012.7.6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함께, 평화헌법 9조 수호를 촉구

위해 대규모 기뢰부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나 미 7함대 소해전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위대 소해전력의 개입 가능성과 유용성은 매우 높다.”(임찬재, “한일군사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대학원, 2012, 41~42쪽) 또 일본은 세계최고의 대잠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구조능력 그리고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 등도 미군에게는 긴요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해역이나 공해에서 소해나 대잠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이 때 한국 해군이 일본자위대에 대해 함정의 입출항 지원, 통신지원, 식수, 음식, 연료, 수리정비 등의 군수지원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 자위대는 기뢰제거 장비 제공 등으로 한국 해군을 지원할 수 있다.

결국 한일 ACSA는 군수의 측면에서 대북 전쟁 수행력을 훨씬 강화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전쟁 수행력에서 앞선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더욱 높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한은 대북 전쟁역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이 일본과 군수 차원에서 협력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과 ACSA를 체결하려는 것은 대북 방어가 아니라 대북 전쟁의 결행과 승리(점령)를 추구하는 것이며 또 이를 위한 대가로 일본군대의 오랜 숙원인 일본군의 한반도 파병과 진주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일본군대의 한반도 파견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한일 ACSA

한일 ACSA는 일본 군대와 한국 군대의 상호 교류나 공동훈련, 교육, 기타 여러 협력적 군사활동 나아가 유사시 공동작전까지를 전제한 위에서 성립되는 협정이다. 미국은 미군이 철수한 필리핀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수단으로서, ACSA를 체결함으로써 미군이 필리핀에 재주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필리핀 ACSA(2002년 처음 체결)는 미군 접근협정(military access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일 ACSA 체결은 그것 자체가 일본 군대의 한국 영역 내 파견이나 체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이 요청하면 그것을 허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점에서 한일 ACSA를 일본 군대의 접근협정이라 불


러도 이상할 것은 없다. 한일 ACSA는 일본 자위대 측에서 보면 일본 군대가 한반도 영역 내에서 필요한 각종의 시설이나 기지지원, 물품 또는 용역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한국군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한국에 일본 자위대의 파견이나 체류가 가능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일본 군부는 1960년대부터 한반도에 대한 일본 군대의 출병을 꿈꾸어왔다. 그 때는 ‘미쓰야작전계획연구’처럼 연구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한국 영역 내외에서 한국군과 공동훈련이나 공동군사작전을 상정하면서 군수지원을 행하는 수준으로까지 일본 군부의 꿈이 진전되고 있다.

5. 한일 ACSA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

한일 ACSA는 한국과 일본의 각자 요구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든 한일 ACSA든 한국과 일본의 개별적 요구보다는 미국의 요구가 더 규정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자신의 영역을 방어 하기에 충분한 독자적인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 한일 간 군사협력 요구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은 국민 총소득이 북한의 38배에 달해 군수차원에서 충분한 대북 역지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이 과거 침략국이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정치적 제약이 따른다.

한일 ACSA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지렛대로 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아니고서는 그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한일 ACSA가 군사대국화라고 하는 일본 군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부수되고 그에 편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일 ACSA에 의해서 주변사태(한반도 유사) 때 미군은 일본으로부터 각종의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와 함께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직접 군수지원을 받게 된다면 미군의 부담은 줄게 된다.

한일 ACSA가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세계규모에서 활동하는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은 일본-호주 ACSA(일호 ACSA)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일호 ACSA는 그 협정문을 보면 일호의 상호군수지원이 미군의 활동과 연계되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령 일호 ACSA ‘제1조(상호군수지원이 가능한 활동 대상) b’를 보면 ‘일본과 호주 군대가 참여하는 훈련’ 때 상호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본과 호주는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림팩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림팩훈련은 일호 ACSA의 적용대상이 된다. 림팩훈련 등 미국 주도의 대북 및 대중국 봉쇄훈련에서 일본과 호주 군대가 상호 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할을 높이고 자신의 부담은 줄일 수 있다. 

* 림팩훈련(RIMPAC) : “유사시 태평양 상의 중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서울평통사

6/12(화)~13(수), 효순미선 10주기 추모제에 함께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회원들

6/16(토),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참가



쌍차 정리하고 노동자의 자녀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6/21(목),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촛불 한마당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캠페인을 마치고~

6월 촛불 한마당은 처음으로 인사동 입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전원을 끌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께 열심히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노동

분회원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강정구 대표님과 최명수 향린교회 장로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6/24 향린교회에서 평화협정 캠페인을 진행



평화협정 서명전 위에 강정마을을 응원하는 전시물이...

6/24(일), 향린교회 마당에서 평화협정 서명전을 벌였습니다. 유호명, 김진철 운영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서명전에 나서 주셨고, 윤영일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마침 옆에서는 향린교회 대학생 모임인 새날 청년회가 제주 강정마을 방문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7/7(토) 한일군사협정 규탄 집회에 참석



집회가 끝난 후 참여한 평통사 회원들끼리~

| 사무국장 황 윤 미

부천평통사

7/24일 부천에서도 강정촛불이 힘차게 열려

시작 전부터 둥글이님이 만든 영상을 틀어 지나는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다짐글 쓰기도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역 촛불 이어하기 하는 내내 비가 내려 비가 오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길놀이

촛불을 120여개 준비했는데 초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천에서 가장 큰 문화제/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천에서 함께한 지역의 동지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잠깐~~ 무엇보다 송내역 광장을 지나며 관심있게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아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사다주시는 시민 분들도 있고 내용을 물어보고 수고한다며 지나는 시민들까지 강정의 문제가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정 촛불 집회에 참가한 성심수녀회 수녀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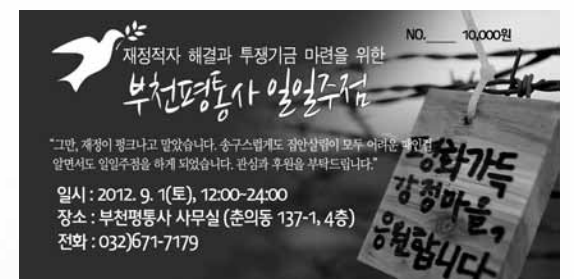
참가자들에게 나누며 촛불 이어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노동사목 조대원 사무국장의 결속한 사회로 신정길 대표님의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더 나서자는 이야기, 통합진보당 부천시협의회 백현종 회장의 국회에서 해군기지 예산이 한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부천민중연대 유신호 집행위원장의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이야기까지 이야기마당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직접 보내주신 영상도 함께 보고, 마무리는 역시 강정 마약댄스 '좋아송'을 신나게 추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마무리 하며 다같이 춤추기

9/1 부천평통사가 후원주점을 합니다.



적자재정 해결을 위한 일일주점을 한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배짱도 좋게 주점을 잡았습니다. 부천 근교에 사시는 회원님들!! 많이 많이들 오시어 시원한 맥주 한잔 같이해요!!

| 공동대표 주 정 숙

2012년 7·8월호 · 53

인천평통사

6/21 평화협정 촛불마당 '한일군사협정 여러분의 생각은?'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생각은?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가 들킨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넘어 분노하면서 반대에 스티커를 꼭 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젊은이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런지 찬성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7/8 제2회 인천평화발자국 '조병창에서 애스컴시타까지'

김현석 학예사의 설명으로 장수산(청천동) 팔각정에서 '부평의 역사'를 듣고, 산곡동의 영단주택을 돌며 요즘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었다는 부영공원을 거쳐 부평공원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는만큼 보인다'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다녔던 길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 제 3회 인천평화발자국은 9월 9일(일) 오전 10시 인천역(인천 근대개항의 역사와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 : 월미산~이민사박물관)에서 출발합니다.

7/19 달려라 촛불! 형내라 강정,쌈차! 지키자 평화!

300여명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 모여 강정과 쌈차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기차길 옆 작은학교 청소년들의 울동과 손수만든 천연비누, 해오름 공부방 어린이들이 공병과 폐휴지를 모아 만든 성금 전달. 또한, 즉석에서 모금을 진행했는데 많

은 성금이 모금되는 등 강정사랑이 넘쳐나는 행사였습니다.



강정주민 김성규 님



근래에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강정에서 붙여온 촛불이 인천까지 왔어요. 청사초롱 입장

| 교육부장 김 강 연

[알립니다]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 윤경세, 조성돈 회원님

대전충청평통사

산행을 하며 평화를..

2012년 두 번째 평화산행은 칠갑산입니다. 보령이나 홍성을 가면서 차창 밖으로 바라만 보던 산입니다. 점심 도시락도 맛나게 먹고 조금은 험난했지만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평화산행은 가을에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신 대전청년회 회원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달려라 촛불! 형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대전 촛불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대전을 시작으로 논산, 청주, 보령에서 강정평화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마철 비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대전은 맑은 하늘이었는데, 촛불 행사가 시작되자 비가 내리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강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참가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대전 행사에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4대중단 성직자분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논산은 정말 폭우였습니다. 영상조차 상영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촛불은 밝혔고, 아이들의 아름다운 오카리나 공연에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청주는 구럼비를 살려줍서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행사전에 많은 분들께 강정을 알렸습니다. 구럼비 조형물 주변에 촛불을 밝히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보령은 비가 와서 회원들이 천막도 치고, 의자도



청주 촛불



보령 촛불(왼쪽), 논산 촛불(오른쪽)

나르고, 사회도 보고, 시낭송도 하고, 회원들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진 촛불이었습니다.

대전충청은 보령을 마지막으로 강정에서 온 촛불을 평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분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강정평화를 위해 마음을 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모임

서산 모임에서는 한일군사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부하고 727선언과 1인시위를 논의했습니다. 서산 모임은 뒷풀이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밤이 다가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노래를 좋아하는 회원들 덕분에(?) 새벽까지 지칠 줄 모르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확산탄 금지조약 가일촉구 활동

한화 공장앞 확산탄 생산중단 촉구 평화행동에 김영석, 원용철 공동대표와 이찬구 운영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사무국장 장 도 정

군산평통사

미군기지 쉼포에 저항해오 군산에서
강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산시민 평화촛불이...



지난 7월 12일 저녁 7:30 구 보건소사거리에서 90여명의 군산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강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산시민 촛불집회가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순서로 강정에서부터 촛불이어켜기 행사를 처음부터 참여해 오신 영화평론가 양운모 선생과 강정마을 주민 윤상효 님이 제주 강정에서부터 이어져 온 촛불을 군산시민들을 대표하여 김연태, 문성주 군산평통사 공동 대표님에게 전달하는 촛불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점등된 촛불이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 하나 둘 켜지면서 강정평화를 바라는 군산시민들의 마음도 모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연태 대표님은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에 맞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촛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군산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해군기지 백지화 투쟁을 더욱 확산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산에서 강정투쟁에 함께 한 적이 있는 집회 참가자 중 김희인 나운동 성당 신부님과 문정숙 군산생협 대표님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양운모 님과 윤상효님 등 강정주민들을 환영하며 포옹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양운모 님, 윤상효 님은 주민 말씀을 통해 “강정 투쟁을 함께 벌여주시는 군산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보내주신 연대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면서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하였습니다.

유연택 민주노총군산시지부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큰 사업장 두 곳에서 임단협으로 농성투쟁에 들어가게 되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모두 여기와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문제나 평화의 문제는 모두 같은 문제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색소폰으로 “바위처럼”과 “광야에서”를 연주하면서 강정주민을 환영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실천하기 순서에서는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국회 제주특위 구성안 서명과 관련 예산 삭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문자, 트윗, 페이스북 글 보내기를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참가자들 모두가 강정 마약댄스를 추면서 함께 추고 기념촬영을 한 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마약댄스 시간에는 아파트 주민들까지 나와서 박수를 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참가하는 흥겨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2005~2006년 핵폐기장 투쟁 이후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집회에 이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지역연대 촛불집회가 되었습니다. 

| 사무국장 김 판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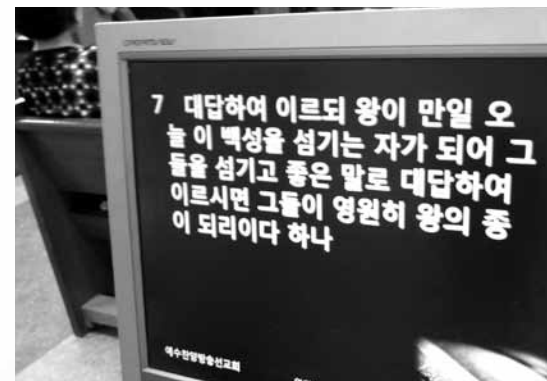
[알립니다]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 김성곤 회원님

전주평통사

전북지역에서 대중교양사업의 새로운 모범을 세우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동노회 교회와사회·평화통일위원회, 환경위원회, 농촌목회자협의회에서 공동주관하고 있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 기도회”가 횃수를 거둬하며 대중교양사업의 모범과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1차 전주전광교회, 2차 오수제일교회, 3차 남원 살림교회, 4차 진안동부교회까지 진행을 했다.



애초 4대강, 한상렬목사구속, 제주해군기지 등 현안을 놓고 천막농성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젊은(비교적!)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현장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집회가 성사된 것이었다.

첫째, 소수 앞장 선 활동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체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방식이다. 설교를 포함해서 자료제작과 역할까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다.

둘째, 교회 바깥의 임의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을 통해 움직인 것도 주목해야할 점이다.


노회라는 공조직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와 재정, 조직 등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중을 생활공간 밖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대중이 머무는 삶의 공간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대중들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 밖으로 어지간해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중을 만나려면 대중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넷째,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교양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교회대중에게는 예배가 소통을 위한 언어이고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올바르게 좋은 내용일지라도 낯선 언어와 문화로 접근했을 때는 경계를 하거나, 거부감을 보이기 십상이다. 예배 언어를 통해서 이명박의 실정, 4대강, 해군기지, 노동 문제 등 진보의제를 던졌을 때, 대중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

문제는 진보, 보수 의제가 아니라, 진실성과 소통의 언어가 아닐까?

다음 5차 시국기도회는 8.5(일), 전주안디옥교회로 정해졌다. 기장교회로서는 대표적인 대형교회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 진보의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내고, 성과 있는 시원한 가을을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사무국장 이 재 호

김제평통사

6월 학습과 7월 학습

6월은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책을 공부했다. 7월에는 평화누리에서 한일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와 천문학적 대형무기도입의 실상을 정리해 보았다.

7/10 쫓불 한마당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가 틀리기를 바라며 행사장으로 갔다.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이 정도 쬼이야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걱정도 되었다. 행사장에 가니 이봉원 대표, 김판태 군산 사무국장이 비 때문에 걱정을 한다. 누군가 천막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농민회, 자활센터 천막을 빌려와 천막을 쳤다. 천막 앞쪽에 펼침막을 걸고, 영상 장비 설치하고, 전기 끌어오고, 다른 지역에서 온 응원 깃발 달고, 구럼비 펼침막 걸고, 은박지명석 깔고, 응원 깃발 쓸 책상 준비 까지 마치니 행사 시각이 되었다.

도농민회 하연호 의장, 박홍식 부의장, 평통사 강정구 상임대표, 박석분 팀장, 전북지역 평통사 가족들, 김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 우석대 학우들 순으로 소개를 했다.

이봉원 대표가 행사 취지와 여는 인사를 했다. “해군기지는 미군 기지로 사용 된다.” “평화협정 체결해야 미군을 몰아 낼 수 있다.”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해군기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제주에서 온 양윤모 선생님, 길잡이 나비, 쫓불 이어하기 진행을 도와주고 있는 양창흠 동지를 소개했다. 양윤모 선생님은 제주 강정에서 가져온 쫓불을 맨 앞에 앉아 있는 분 초에 불을 붙여주었다. 쫓불은 옆으로 뒤로 차례차례 전해졌다. 초가 행사장을 환하게 밝혔다. 비구름 때문에 평소보다 더 어두워 초는 더 밝아 보였다. 양윤모 선생님은 청사초롱을 들고 강정

소식을 전해주었다. “강정 주민들의 싸움은 처음에는 소박했지만 지금은 전사가 되어 투쟁하고 있다.” “강정에 평화가 올 때 세계의 평화도 온다.” “반드시 강정은 승리해야 한다.” 라고 힘주어 김제 시민들에게 강정 소식을 전했다.

김제여성농민회 강다복 교육부장이 강정주민들 맞이하는 환영사를 했다. “강정에 몇 번 갔었다.” “갈 때마다 강정주민들 싸움에 마음이 아프고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꼭 이겨 주민들이 해군기지 없는 평화로운 강정에서 살아야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과 희망의 환영사를 전했다.



춤 공연

모두 일어서 강정마약댄스 중 하나인 바위처럼 영상을 보며 노래하고 율동을 따라했다. 율동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지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보였다. 웃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시민들을 보면서 강정주민들 모습이 겹쳐졌다. 이들도 힘들 하루를 마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내일의 희망을 다짐했을 것이다.

자유발언 시간이다. 맨 먼저 강정에 갔다 온 아이가 구럼비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해군기지 건설로 구럼비가 없어지는 안타까움 그 위에 살고 있는 붉은발 말뚝개와 강정 앞바다에서 노는 돌고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였다. 두 번째 발언은 공연을 위해



강정마을 응원 깃발 쓰기

학생들과 같이 온 안무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그동안 강정마을을 비롯해 어려운 현장과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공연 요청 전화를 받고 무조건 간다고 했다.” “경찰에 끌려가는 수녀님들 사진을 보면서 분노했다.” 고 말했다. 세 번째 노기보 신부님은 “강정 해군기지 뿐 아니라 한일군사협정 체결되면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면 분쟁의 불씨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강정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군사 협정과 안보 논리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집단까지 이야기 해주었다. 네 번째 도농민회 박홍식 부의장님이 “지난 주 제주에서 한중 FTA 투쟁을 하고 왔다.” “투쟁을 마치고 강정마을에 갔다.” “해군기지를 만드는 이명박 정권을 용서 할 수 없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한다. 제주강정에서 온 쫓불을 군산 김연태 대표에게 전달했다. 쫓불을 전달 받은 김 대표는 들불처럼 한반도에 번져나가길 희망하는 듯 청사초롱을 하늘 높이 흔들었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자 참가자 들이 비를 피해 움직이고 행사장이 어수선했다. 마지막 남은 공연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공연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졌다. 공연 의향을 여쭙어 보니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공연

단이 비를 맞으며 앞쪽으로 나왔다.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강정과 한반도 평화, 해군기지 백지화를 바라는 춤꾼들이 마음이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참가자들도 춤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동놀이처럼 모두 함께 어우러졌다.

회원과 지역 단체 대표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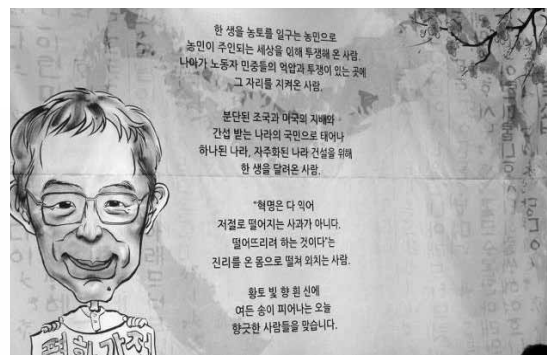
6월 말~7월 초 2주동안 회원과 지역단체 대표자를 방문했다. 퇴근 후 또 주말 이용해 방문하다 보니 시간 부족과 주말에는 다들 일정이 있어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가정에서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밤늦게 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며 시골학교를 살리는 일에 열심인 선생님, 물이 귀해 어렵게 모내기를 마치고 오다 애쓰다고 제육복음 사준 선생님, 양계장 일로 바쁘고 피곤한데 차 대접에 달걀까지 챙겨 주시는 분, 일자리 만들기과 지역을 살리는 일에 애쓰시는 노기보 신부님, 농촌과 땅을 살리려고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는 회원님, 김제 곳곳에 가스를 배달하시는 회원님, 투쟁사업장 농성자 건강을 챙기시며 전국을 다니시는 회원님, 공휴일도 없이 아이들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 학교일로 애쓰는 선생님, 다른 일 일찍 마치고 행사에 꼭 가겠다고 약속해주신 여농 이보연 회장님,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시는 정 많은 텃밭 사장님, 손수 지은 친환경 보리쌀을 주며 쫓불 행사에 꼭 가겠다고 약속한 회원님, 학원 일로 쫓불 행사에 못가 서운해 하시는 회원님...

비 때문에 힘들었지만 회원 분들과 더 가까워졌다. 이번에 방문 못한 회원들은 가을에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전남평통사

배종열 상임대표 출판기념회와 팔순 행사



배종열 상임대표 팔순 행사

6월 28일 배종열 상임대표님의 책,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출판 기념회와 팔순 행사를 무등 파크호텔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에 전국에서 농민운동가, 통일운동가들 그리고 각 지역의 활동가 300여명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여하여 평생을 농민운동과 평화통일에 몸 담으신 대표님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화의 촛불, 강정에서 서울까지 촛불 이어하기”

광주전남지역에서 촛불 이어하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28일, 29일 목포, 여수 공식적인 촛불 이어하기 행사는 아니었다. 목포와 여수에서 촛불 이어하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목포에서는 연기되었지만, 여수에서는 30여명이

모여 여수시청 앞에서 진행 촛불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양과 여수에 살고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7월 2일(월) 땅 끝 해남, 해남군천 앞에서 “평화의 촛불, 강정에서 서울까지 촛불 이어하기” 행사가 전국적으로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주 강정에서 김정민 노인회장, 양윤모 선생 방문을 해 주셨고 해남지역 활동가와 군민들 약 80여명이 비가 오는 가운데 곳곳하게 참가해 주셨습니다. 평통사 본부에서 배종열 상임대표, 강정구 상임대표 참가. 광주전남 평통사에서 서창호 공동대표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남 촛불 이어하기 행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참가자 모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의 촛불, 강정에서 서울까지 촛불 이어하기” 공식적인 첫날 행사라 많은 우려를 했지만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해남 평통사 박병을 사무국장이 주변을 열심히 조직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해남에 이어 7월 3일(화)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촛불 이어하기” 이틀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도 강정에서 김정민 노인회장님, 양윤모 선생과 평통사 본부에서 문규현 상임대표, 강정구 상임대표, 고영대 공동대표, 오혜란 사무처장, 박석분 팀장 참가을 비롯해 순천 평통사 회원 80여명 참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순천의 경우 지난 5월 27일 창립

익산평통사

을 하고 6월에 강정에 김치 보내기 행사에 이어, 이날 촛불 행사까지 연일 굼직한 실천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순천 촛불 이어하기 행사는 특히 회원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약식 행사와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가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촛불 행사였습니다.

셋째날 행사로 7월 4일(수) 광주 촛불행사가 구) 삼복서점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제주 강정 마을에서 정영희 여성위원장, 양윤모 선생이 참가하셨고 평통사 본부에서 문규현 상임대표, 고영대 공동대표 참가, 광주전남 평통사 박종섭 대표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광주 촛불행사에는 회원뿐 아니라 그동안 강정 마을에 관심을 가졌던 250~300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임원과 간부들, 광주시민센터 회원들, 전교조 선생님들, 대학생들,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들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장애우 형제들도 많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광주 촛불 이어하기 행사에는 최근 광주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마지막 행사로 7월 5일(목) 무안 불무공원에서 ‘촛불 이어하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향이 전남 무안이기도 한 강정마을회 정영희 여성위원장, 양윤모 선생이 참가하였고, 평통사 배종열 상임대표, 광주전남 평통사에서 박종섭 대표를 비롯하여 9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무안지역 행사에 기독교 장로회장 무안시찰회에서 목사님들과 교인분들께서 많이 참석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 사무국장 정 동 석

익산평통사




6월 21일(목) 저녁 7시 하나은행 앞에서 정태인 대표, 참여연대 이장우 대표이사, 유만영 운영위원, 김대송 사무국장 등이 평화협정 캠페인을 진행하여 42명의 길잡이가 서명 하였습니다.



6월 21일(목) 저녁 7시 영천교회 샘 카페에서 익산평통사 13기 3차 운영위원회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에 있을 여러 행사들을 토론하고 결의 하였습니다



6월 27일(수) 저녁 6시 30분 모현성당에서 민주항쟁 32주년 기념 행사를 80명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하였습니다. 

| 사무국장 김 대 송

부산평통사

7/14 부산 강정촛불문화제


7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부산 역에서 부산 강정촛불이어제기를 부산평통사를 비롯한 부산 희망촛불, 강정 부산 반사회, 부산 민예총, 재미난복수, 쌍용차부산대책위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최했다. ‘고마해라 (공구루) 마이북타 아이가’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콘서트 형식으로 강정의 실상과 해군기지 무효화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미디어차량을 이용해 뉴스타파를 통해 지상파에서 접하지 못한 강정의 생생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눈길을 잡았다. 비가 무지하게 쏟아져음에도 100여명의 시민들은 2시간이 넘도록 강정에서 출발한 평화의 봉화를 밝히며 시민들에게 구럼비를 함께 지킬것을 호소했다.

윤상호 강정주민, 문규현 신부님, 양운모 선생님 인사 말씀과 여러 문화 공연이 어우러졌고 이 날 부



산 촛불행사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 강정지킴이들이 많이 참석했고 바람개비 자전거 순례단의 결합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풍물 놀이로 흥겹게 마무리하였다.

이어 오키나와에서 온 분들이 오키나와 노래와 춤으로 강정과연의 연대를 표현했다. 문규현 상임대표의 연설은 참가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문규현 신부님은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하고, 부산 앞바다에 출몰하는 미군들의 항공모함과 전쟁병기들이 민주화 성지 부산의 위상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이제 부산 갈매기는 평화로 날아야 한다”고 외쳤다. “부산은 이제 평화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문 신부의 호소에 부산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 총무 김 건 우



바람개비 자전거 순례단



풍물 난장으로 마무리

회비와 후원금 (6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대표/임원] 강정구 고영대 문홍주 배종열 변연식 이일영 임종철 김성윤 권정호 박용일 강경옥 정혜열 홍창희
[후원회비] 강영태 김동완 김명래 김성순 김용순 김점수 김준기 김형배 류미아 문영진 박이순 박정래 변이철 서경숙 신희정 양우성 오민주 유광수 유영섭 이성호 이우영 이은혜 이창우 임순래 장성주 정화선 황 완
[후원금] 권현영 김미숙 강남교회 새길교회 통일광장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향린교회청년남신도회 향린교회회년남신도회

서울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강유겸 고정심 고순계 고예정 고이지선 공동길 구수영 권처홍 기동서 김각영 김경자 김규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훈 김명일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보경 김상중 김석민 김선희 김성연 김성연 김승현 김연옥 김영리 김영진 김영진 김유석 김은미 김은미(2개월) 김일수 김재원 김장자 김종일 김종일 김준한 김지수 김진환 김창호 김충례 김한성 김향연 김현애 김현진 김혜숙 김화순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김희현 나현대 나혜영 노은아 맹봉화 박경철 박경혜 박명숙 박상철 박석분 박승환(2개월) 박영희 박은봉 박정수 박정훈 박종권 박종기 박종양 박찬주 박철현 박후일 박희성 박만식 배유미 서동빈 서보혁 서영석(2개월) 서정호 서창식 서황식 신소진 신순단 손우정 손은정 송금심 송영자 손상환 신영철 신재훈 안병선 안병순 안일룡 양순주 여혜숙 연선민 오미정 오행진 오현실 오혜경 우미정 원영진 위선남 유영재 유영철 유효상 윤영수 윤영일 윤영진 윤정원 윤호상 이정식 이경아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남현 이덕희 이병일 이상근 이경은(2개월)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소영 이수정 이형수 이순혁 이승무 이승민(2개월) 이애용(2개월) 이영옥 이 윤 이윤영 이은영 이종남 이종수 이창호 이현규 이현규 이현숙 이현준 이혜영 이혜진, 박승렬 인민지, 김중환 임동원 임보라 임승현(2개월) 임창혁 임태환(2개월) 장기준 장성식 장숙이 장희수 정귀남 정동희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애경 정은선 정준영 정지성 조영희 조창현 조현우 진태준 최규화 최대옥 최미화 최성민 최성하 최정옥 하보애 한기황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재현 한중현(2개월) 함재규 허정섭 허현중(2개월) 현동식 홍문수 홍봉현 홍승환 홍영의 홍인덕 황규금 황 선 황윤미 황호정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환 공경미 광노충 구자춘 구현모 권혜숙 김덕근 김덕희 김성근 김성용 김성호 김성훈 김숙희 김숙희 김민영 김정은 김정호 김종대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주 나종관 노은하 문은정 박병준 박석진 박성준 박숙경 박영민 박인호 배영미 백창석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손종옥 송봉훈 신장호 신정길 심영섭 양관영 유승우 유정엽 이규완 이리나 이병훈 이보영 이상수 이숙주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현주 이혜련 임현순 임현철 장동환 장인옥 장혜영 전윤미 정승현 정용진 정인조 조기대 조미옥 조민우 조영선 주명숙 주영일 주옥현 주정숙 주호현 지은희 지태봉 차복래 최경순 최정규 최혜정 최희준 허민영 현지환 홍진표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객준경 구완모 권오승 권창식 권태형 김갑봉 김강연 김경옥 김두원 김맹규 김문경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오섭 김은영 김의균 김일희 김종선 김주숙 김준찬 김태영 김형진 김희경

남익현 두현진 박광선 박병석 박순길 박순이 박승문 박승주 박유순 박창훈 서경석 서경혜 서영선 서재훈 서화조 석원희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송철로 신나영 신동훈 신창선 신필녀 심옥빈 심자섭 안영봉 안용국 여영석 오수정 오현곤 원용한 유근석 유정섭 유한경 윤인중 윤화심 이남희 이무섭 이무용 이법철 이상준 이성은 이승희 이용근 이용수 이은직 이용하 이재운 이재형 이정옥 이재학 이종훈 이준걸 이천직 이종직 이종환 이현규 이종만 이희환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동훈 전현구 정동민 정서진 정송호 정유성 정찬식 정현숙 정형서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혜 조승현 조인휘 조태옥 주병준 진재환 차광호 최노을 최성묵 최영 최영준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추영호 한상옥 한연숙 한영순 한정복 한종현 홍 종 홍학기

[후원회비] 강숙현 강영규 강원희 고숙희 김경순 김대인 김명종 김미경 김민정 김상기 김소희 김연숙 김영호 김준은 김준태 김준환 김지수 김지훈 김태현 김현주 김희숙 명은실 문경진 문병호 문선희 박규남 박미경 박순덕 박순희 박영민 박현숙 박혜숙 백은정 부평1동성당 서덕용 소병옥 송경평 송금화 송한식 신활수(강계순) 신용순 신윤례 신정순 신현광 심이섭 심재원 안덕자 안용원 오석근 오성기 오종훈 오창근 오혜영 우수홍 유성국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유현섭 윤성우 이경호 이대준 이덕규 이덕희 이미경 이병란 이성희 이승미 이승현 이옥희 이용근 이은희 이재규(원미동성당) 이재우 이진범 이종일 이형진 이혜경 이혜정 이화진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장귀숙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윤엽 정희진 조두환 조영정 조은진로사리아 조재호 조현숙 지역과함께하는사제모임 최 웅 최정옥 최현숙 하태준 한만송 허문에 허필자 황선하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신 황상근신부님, 하태준님 고맙습니다.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지애 구영자 권오일 권혁범 김상용 김주성 김창환 김백균 민영환 손영민 신상철 신종원 오영미 윤귀광 이근광 이상진 이수용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재영 이종필 이진희 장창원 정인규 조재길 채한석 추영배 한은숙 홍성조 황명선 황재순 홍성조 (주)도프

대전충청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가명현 강대훈 강민영 고광성 구분준 구영본 권선필 권기석 권진복 김병민 김경구 김경숙 김기수 김기현 김도석 김미경 김미연 김미옥 김상중 김성자 김승진 김영석 김영숙 김오경 김용일 김정호 김종성 김주호 김지수 김현식 김홍업 김홍철 김홍수 나백주 노청래 노홍일 류기형 문양로 박경란 박노찬 박인기 박혜경 박희인 변지숙 변혜숙 서기순 서남철 서순희 서영환 서영희 손근석 손용갑 송관옥 송기은 송미영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신성원 신주희 신현정 신효철 심진호 안학수 양성호 엄청나 오광영 오명세 오무광 오수철 오순자 오은아 오찬실 우장식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윤혜정 윤효린 이강용 이경아 이광현 이병영 이성휘 이세춘 이승용 이승철 이영주 이요한 이용우 이재욱 이재우 이정학 이종명 이종철 이지연 이찬구 이춘자 이화자 임인수 임재현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전은경 정보영 정선원 정성삼 정창식 정희대 조동준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용국 조재현 조주형 최기호 최영규 최영민 최정민 추교화 한상일 한연환 한용세 함필주 허민정

익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익현 김대승 김미경 김아름 김유순 김종혁 김주훈 김현숙 김희진 문영만 박두식 박영배 박영배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방용승



회비와 후원금 (6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송동한 안경숙 안경숙 양재석 오기주 오동선 오인빈 오인빈 유만영 유희탁
이경진 이근수 이병식 이성교 이용숙 이용신 이윤성 이장우 이종구 이진규
전미영 전병생 전호일 전호정 정병욱 정운승 정운용 정은주 정태인 채운석
최갑선 최미화 최민욱 최재철 최희권 최희권 허정길 현우익 황영하 황인철
황종철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정식 고차원 김경수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말이
김미주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세훈 김세희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판태 김효성 노경두 노승민 라귀인 문성주 문영용 문정숙
박영배 박영희 박종수 박종태 박준희 서경희 서동환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오금수 오병철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위양자 이계택 이민우 이봉효 이상호 이종인 이현주 임보영
임춘희 임홍원 장미애 전해숙 정동훈 정 단 정 민 정옥진 정창완 조규춘
조성옥 조재용 조관철 채영호 최광만 최대준 최소영 최영복 최웅진 최이화
최재석 하운기 한성자 황현정 황두만

전주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권 고이석 국 산 권동용 김미란 김민정 김수돈
김여진 김영순 김영호 김재병 김충만 김효숙 노백송 노재화 문화규 민혜경
박동진 박상희 박우성 박원희 방용승 백혜영 심병호 양경자 양진규 염경석
오은미 오현숙 유미혜 유영진 이기봉 이도주 이석영 이 섭 이송렬 이승희
이영식 이재호 이종태 장정우 장종철 정재철 정형용 조경희 주용기 최금희
최명호 최정옥 허만승

김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구윤상 권태정 김미라 김영기 김영미 김익현 김진원
김형에 나현균 남궁윤 노경두 노기보 박기주 박용환 박종혁 방원필 손은하
오명연 오윤택 오은숙 오인근 유성룡 유재홍 이봉원 이수금 이용만 이윤재
이은경 이현승 임승기 장덕상 정안석 정형국 정호영 최규집 최효길 하성애

광전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득룡 강복현 강순철 강은미 강용재 강익준 강정원
고병국 고선희 고영민 고영철 고익종 고재한 고정석 고희문 곽길성 권점용
기원주 김경수 김경윤 김경일 김경태 김관주 김광덕 김광수 김광식 김광열
김국용 김기남 김기만 김누리 김대성 김대현 김덕현 김도균 김동선 김동열
김 문 김미정 김미숙 김민혜 김범중 김병국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선발
김선일 김선태 김선호 김선호 김성룡 김성보 김성수 김성철 김수경 김수미
김 순 김승태 김양수 김양수 김영식 김영희 김연호 김옥길 김완진 김요섭
김용성 김용재 김유옥 김은곤 김은숙 김은희 김재현 김재현 김정래 김정태
김정호 김종수 김종필 김준희 김진근 김창선 김창주 김창필 김태욱 김하성
김행연 김현주 김호산 김희식 김희용 나성근 나옥석 나종필 남종우 노기탁
노병남 류승환 마삼진 마승희 모영현 문영란 문유신 문은조 문재식 문형귀
박광순 박광운 박귀순 박규상 박명섭 박미라 박명섭 박병을 박삼석 박상복
박상희 박석면 박석중 박석환 박선이 박선이 박선재 박선택 박승규 박영자
박오열 박옥열 박용순 박 웅 박윤수 박재욱 박정훈 박종명 박종삼 박종섭
박종열 박종주 박종찬 박종재 박종택 박주순 박찬형 박창규 박필수 박홍순
박홍환 방진석 배경섭 배무궁 배민휴 배성환 배영일 배영준 배요섭 배정섭
배중진 백금렬 백지은 서상용 서영옥 서정대 서종환 서창호 서현화 소재삼

손민섭 손승상 송규완 송병준 송봉섭 송진환 송호철 신덕희 신원식 신화균
심재순 안병일 안성래 안종기 안주용 안희만 양순규 양승집 양창흠 양혜주
엄상명 오공희 오근선 오대경 오승경 오승주 오옥목 오철웅 오하근 오해균
오형욱 유영순 유옥상 유원상 유진이 유현승 윤근현 윤동주 윤봉란 윤선하
윤영덕 윤영배 윤정훈 윤준서 윤준근 윤 현 윤홍연 이겨라 이광교 이광철
이교창 이근자 이귀임 이규학 이기호 이기호 이기훈 이병식 이상범 이승현
이승진 이승현 이양범 이영기 이영형 이완열 이용대 이용섭 이용인 이용범
이원석 이윤옥 이장수 이재광 이재덕 이재범 이재창 이재휘 이정화 이정훈
이종민 이준성 이지숙 이철우 이충재 이태석 이태욱 이향재 이현수 이형민
이희수 임광석 임대명 임원택 임재점 임현삼 장관철 장덕자 장두석 장봉식
장세근 장순영 장연승 장우광 장재기 장주섭 전경일 전수열 전승룡 전영남
장거섭 정기대 정길주 정동석 정복록 정상호 정석기 정승창 정영환 정영호
정육재 정유철 정윤자 정일태 정종득 정종범 정중석 정찬목 정찬명 정철주
정행만 정현경 정혜원 정홍균 정형달 정희억 조규진 조선호 조용석 조진태
조희희 주근호 주민선 주승민 주효숙 진재영 차정운 채일선 천병학 최기호
최루미 최병상 최 성 최성민 최영수 최옥수 최용호 최운덕 최은숙 최종철
하승학 한강희 한명철 한병일 한봉철 한혜숙 허중 홍광표 홍식주 홍용식
광주 민들레교회 무안 용학교회

안동평통사

[CMS 회원만] 강민석 권영희 권주원 김두년 김옥희 김춘섭 김혁배 민현주
박재근 박화무 배오직 손현목 이천우 이태환 이혜선 조선아 차명숙 최난희
최형석 한영선 마명락

대구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경수 고희림 구인호 권향숙 김병길 김상임 김옥희
김진영 김현탁 남태우 노의학 박배일 박성민 박순종 박재범 박재중 박준우
박진강 박태희 백창옥 서수녀 손영준 송철환 안현수 엄상현 유소희 윤병태
이대식 이미정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영훈 이오식 이인경 이창우 이창주
임성열 임전수 장성대 전창훈 전호관 정경식 정민규 정용섭 정진술 조규천
주경봉 차상혁 하재철 한기명 한상옥 허정호 황병윤

부산평통사

[회원회비] 김진우 김동석 김재연 김지영 김창호 김홍술 석혜진 손재현
안명준 이경희 이활신 이수정 이종명 이화진 전순옥 정성목 조관래 최영혁
[후원회비] 김남기

제주지역 회원

고관일 권형우 김경훈 김성규 양윤모 양윤호 오주연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노재일 신정길 임승계 조현정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근수
이법준 이선업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총무국